朝鮮日報 夕刊 六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蔣、全國實力派網羅 緊急國防會議를開催

全國戰線統一內外에誇示 對日作戰方針決定乎

【南京五日發同盟】地方各將領의南京參集을求하야 蔣介石은 擧國一致의 抗日工作을 決定하기爲하야 擴大强化한國防會議를 一兩日中에 緊急開催하기로되여 南京軍政界의 空氣는 極度로 緊張한비츨뵈이엿다 今回會議는 全國實力派의 首腦部를 網羅한會議로서 中央은 이에依하야 全國一致 戰線統一을 內外에誇示하려고 猛活動中이다 廣西代表白崇禧는 連日 蔣介石 王寵惠와 對日策에對하야 協議하고잇는데 白崇禧가 가장 强硬히 對日交戰을主張하는模樣으로 會議는 二日間豫定인데 이會議로 現下時局에對한 國民政府의 最高方針과 對日作戰方針이 決定될터이다 (寫眞은 蔣中正)

地方軍界의將領 續續南京에參集

【上海五日發同盟】四日何成濬의 南京入에 繼續하야 蔡廷楷는八日에 雲南의龍雲、四川의劉峙는 九日에 各其南京에 到着한다는旨를 國民政府에 公電이잇고 張學良도 近近南京으로 向한다고한다 이미 南京에드러간 閻錫山、白崇禧、何成濬等을爲始하야 地方軍界의 將領은 續續首都에參集하고잇는데 蔣介石은 此等將領에對하야 抗日戰線統一과 國家非常時體制結成의 主張으로부터 各地의 將領과 中央과의 連絡을緊密히하고저 努力할터로 이를爲하야 此等將領에對해 軍資金의 名目下에 이미多額의 懷柔費가 提供되여 中央軍部의 統一은 抗日意識의 昂揚과相俟하야 一大强化가 促進되고잇는模樣이다

張學良도出席

西安事件에墜落된人氣를 抗日戰線出動으로回復?

【上海五日發同盟】西安事件以來 浙江省奉化縣의 溪口에 軟禁되엿든 張學良은 蔣介石의 招電으로 近近 南京에赴하야 全國將領國防會議에 出席하게되엿다는데 學良은 蔣介石과 會見한後 從來부터의 持論인 抗日即戰論을 鼓吹하야 時局解決에 進出、過般西安事件에 依하야 喪失한 地位와 信望의回復을 圖하려는것으로 觀測된다 學良이萬若今回의 抗日戰線强化擴大會議後에 會로 復活된다하면 舊東北軍을 統帥하고 北上部隊에 參加할것은 豫想키어렵지안흔것으로 그出所進退는注目된다(寫眞은張學良)

北平籠城解消 時機尙早視?

【北平五日發同盟】籠城十日間當局의 時宜에適한 東交民巷에의撤退令으로 北平在留邦人의 生命財産은 完全히 保護되여왓섯는데 其間通州事件을 爲始하야 廊坊順義에 繼續하는 不測의事件이 發生함에鑑하야 籠城解消에關하야 大使館 軍部 日本居留民會其他各方面에서도愼重考慮中이엿섯는바 今日까지의 北平城內의事態로보아 解消는 時期尙早이나 當間男子만의 東交民巷外의進出은 大體로 危險치안타보고 六日에는 正午부터 午後六時까지 七日以後에는 午前九時부터 午後六時까지 外出을 許可하기로 決定하엿다 이로서 몹시이만콤 避難한 사람들은 整理에 專念하게될모양이다

冀察政務委員會 合議制를實施

【北平六日發同盟】張自忠의 冀察政務委員長代理辭任後 冀察政務委員會는 委員長制를 廢하고 常務委員、齊燮元、賈德耀、李思浩、張允榮、張璧等五名의 合議制에依하야處理하기로되엿다 齊燮元、賈德耀兩氏는 以前부터常務委員 李思浩氏는 經濟委員會首席으로 새로選出되엿스며 張允榮、張璧兩氏는 去四日委員에選出되엿든것이다

廿九軍系總退却

冀察地方參議會創設

【北平二十六日發同盟】支那側消息에依하면 二十九軍系의 總退却으로 冀察新政權은 새로時局收拾策으로서 冀察地方參議會를 構成하기로 決定하엿는데 同會는 冀察各縣으로부터 各其代表를 一選出하야 民間의總意를 直接北支의情勢에 反映시키기爲하야 創設된것으로 參議會의 結成으로 北支政局은混亂으로부터 漸次自治的色彩가濃厚한 新政權樹立이 期待케되엿다

四中全會速開에 反蔣派反對表示

【上海五日發同盟】近近擴大國防會議에 繼續開會될 國防會議擴大會議에繼續하야 十月中旬開催豫定인四中全會議의 開會期를다거서 今月中旬에 召集하라는要求가 蔣介石側近間에 高唱되여 或은急速히兩三日中에 召集期日을 決定發表할지도 모를情勢에 이르렀다는데 右는 結局交戰과 下野要求와의中間에까지 進退維谷의 難關에處한 蔣介石이責任轉嫁를 圖하려는것으로 反蔣派는 오히려四中全會의 繰上召集에 反對의態度를 示하고잇서 擧國一致對日作戰의 裏面에는 文字그대로의 國內相剋의對立이 아직繼續하고잇다

四日까지軍戰死者

【天津五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午後五時發表 今次北支事變에서의 四日까지戰死傷者는 如左

◀川岸部隊
戰死 將校 一二 准士官 六 下士官 一九 兵 一三三
戰傷死 下士官 一 兵 六
戰傷 將校 二五 准士官 八 下士官 一三 兵 三八三

◀河邊部隊
戰死將校 四 准士官 三 下士官 一〇 兵 六四
戰傷死 五
戰傷 將校 一九 准士官 三 下士官 一七 兵 一五五

◀鈴木部隊
戰死 將校 一 兵 四一
戰傷死 將校 二 兵 二
戰傷 將校 七 兵 一二七

◀酒井部隊
戰死 將校 二 准士官 一 下士官 七 兵 一三〇
戰傷 將校 九 准士官 一 下士官 一〇 兵 一九

◀其他
戰死 將校 三 下士官 二
戰傷死 兵 九
戰傷 准士官 一 下士官 五五

合計
戰死 將校 二三 准士官 一 下士官 三八 兵 二七四 計 三四四
戰傷死 將校 二 下士官 一 兵 一六 計 一九
戰傷 將校 六〇 准士官 一 下士官 六三 兵 七三九 計 八七五
戰死傷總數 一、二三八

市民動搖! 各地에避難

【南京六日發同盟】南京을떠나各地로 避難하는 民衆은 六日아침도 陸續하야 停車場汽船待合所等은 이들 避難民으로 大混亂을 呈하엿다 汽車線路는 每日數回의 臨時列車를 增發함에不拘하고 四、五日前의 票까지 全部賣切이되는 事態이다 一般市民의 動搖原因은 數日前國民政府가 憲兵과 巡警을各戶에派遣하야 飛行機襲來의 境遇의決意를 與하야 電燈을 黑紙으로塗하고 드림은 全部 燈火管制를 實施하라고 命令한外 政府要人이 自己들家族을郊外로 避難시키고 잇스므로 一般市民에게 政府는 마침내 日本과決戰한다는 決意를 굿게하는感을 가지게하엿기때문이라한다

蘇、브룩헬將軍에게 抗日支那軍指揮命令說

軍需品輸出에關한蘇支協定도締結 佛國미디紙五日報道

【巴里五日發同盟】巴里미디紙는 五日紙上에서 리가特派員의報道라하고 蘇聯政府가 極東軍司令官브룩헬將軍에對하야 急遽히 某方面으로赴하야 支那軍隊의 對日交戰을 指揮하도록 指令하엿다한다 그런데 리가特派員의 報道는如左하다 蘇聯政府는 브룩헬將軍에對하야 支那의 抗日을組織化하기爲하야 至急히出動하야 國民政府와의間에 對支軍需品輸出에關한 蘇支協定을 締結하도록 指令하엿다 於歟日來莫斯科市內各工場은 盛히大衆集會를열고 對支積極的援助를 決議하고잇다 그러나 아직蘇聯當局은 北支事變의 惡化를不好하고 될수잇스면 日支雙方의 平和解決을 要望하고잇스나 如斯한希望은 實現의 可能性이 더욱稀薄할뿐이다 一方스탈린書記長은 브룩헬將軍이 一時極東軍을떠나는것을 機會로 只今까지 게·페·우가하지못하던 極東軍에對한 積極的肅正工作을 行할意向이라고하야 近近極東軍首腦部에 大手術이行케될模樣이다 (寫眞은 브룩헬將軍)

브將軍渡支說 蘇聯政府否定

【莫斯科五日發同盟】赤軍極東軍總司令官브룩헬將軍이 蔣介石과의間에 軍事通商協定締結의 使命을띄고 支那方面에向하엿다는 外國各紙의 報道에對해 蘇聯政府側은 五日事實無根이라하고 이를否定하엿는데 莫斯科駐箚支那大使蔣廷黻도 右報道를 否定하야 左와如히述하엿다 露支軍事通商協定締結說이 外國에서流布되고잇는模樣이나 通商協定交涉은 別로 새로운事實이아니오 過去二年來繼續하여오던것이다 支那는 現在自己防衛를爲하야 全精力을 集中하고잇는바 蘇聯의 對支同情은 勿論이오 外國에 依賴하려는것은아닙니다

冀察首席代理 張自忠辭表提出

政權維持不可能으로

【北平五日發同盟】前月二十八日夜 宋哲元이 北平을逃亡하는同時에 冀察政務委員會首席代理로 就任한 張自忠은 冀察政權內의 二十九軍系의 唯一한要人으로써 政權維持에 努力하여오든 張自忠은 各方面의 反軍閥空氣를 緩和하기爲하야 自發的으로 第三十八師長의 職을辭하는 一方 事變後時局收拾을爲하야 成立된北平治安維持會에 對하야 多額의 資金을 提供하야 懷柔에 腐心하고잇섯는데 地方各界의 二十九軍에對한 反感은 豫想外로 張自忠은 最後로 冷家驥以下 治安維持會代表者를 冀察政務委員에加하야 二十九軍의 治安維持會에對한 最後의妥協을企圖하려하엿스나 今回의事變을契機로하야 平津一帶의 反軍閥空氣는 意外로 强硬함으로 張自忠도 멀써 政權維持의 不可能한 것을 自覺하고 首席辭職을決意한模樣으로 一兩日中에 正式辭意를 表明할것이라 觀測된다 (寫眞은張自忠)

張自忠後退로 二十九軍系大打擊

【北平六日發同盟】第三十八師長을 辭任한 張自忠은 五日夜다시 冀察政務委員會代理委員長을辭職하엿

【北平六日發同盟】張自忠의 辭職은 冀察政務委員會委員長代理를 辭職함으로 北京市長 綏靖主任은 依然히 張自忠이 代理할意向이잇다 即 實은 冀察政權으로부터 張自忠이 當面의 責任者인 地位를 물러갓달뿐으로 表面的으로는 何等變함이 업스나 京津의 地盤保持에 執拗한 執着을가지고 留任工作에 大活躍을하는 二十九軍系政客은 모다 張自忠의 後退에依하야 大打擊을 바들것은 必然的이다 그리고 今回事變을 契機로하야 北支의 自治的明朗化 實現의 前提라 하야 北支의 肅淸工作은 今後아직 幾多한困難을 豫想케하나 大勢가 漸次軌道에 올르고 잇는것은 否認할수업는事實이다

靑島俄然危機

【靑島五日發同盟】靑島市長沈鴻烈과我大使館領事에對하야 如何한理由를不問하고 我陸戰隊가上陸하려는境遇에는 支那側은武力으로써阻止한다는旨를 明確히言明한以來 靑島의空氣는 俄然一變하야 險惡한緊張感에 包圍되게되엿는데 五十萬市民을 不安中에 陷入케하는 沈市長의이 態度에對하야 各方面에서는 모두憤慨하야 벌서부터沈市長排擊運動이 이르키고잇다 그런데이것이 原因이되여 不祥事에까지 發展할可能性이 만히豫取되므로 事態의危險은 憂慮되게되엿다

戰死傷者

六日午前十一時 司令部發表

◇岡崎部隊
◆戰死者
上等兵 平 菅松 京城漢江通鐵道官舍

◇細川部隊
一等兵 加地 正一 香川縣三豐郡和田村和田五五六
同 江崎 竹雄 木浦府龍館里八七三

◆加藤部隊
少尉 伊藤金次郎 山口縣熊毛郡淺江村
少尉 千葉 平吉 岩手縣東磐井郡摺澤町摺澤一四九
上等兵 北野 定夫 兵庫縣宍粟郡河東村四二六

◆野村部隊
一等兵 辻本 正一 大阪府中河內郡巽村

◆山下部隊
特務兵 金子 强 忠南江景大正町二五

◆戰傷者
◇野村部隊
上等兵 森本 孫平
伍長 中水 千利
二等兵 寺下 君春
一等兵 草下 三郎

◇加藤部隊
少尉 水井 第二
上等兵 森永 守一
一等兵 安田 富春

◇細川部隊
上等兵 三輪 保一
同 今井 弘

首相、感氣로登院中止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은感冒때문에 六日은 登院을中止하고 永田町의 私邸에서 靜養하기로 되엿다 同日午前九時 宮川醫師診斷의結果 輕微한感冒로判明되엿는데 七日은 登院할模樣이다

胡適 蔣介石顧問으로

【上海六日發同盟】北平大學教授胡適은 蔣介石의 懇請으로 蔣介石의 個人特別顧問으로서 北平에 도라가지안코 南京에머물기로 決定하엿다 그런데 胡適은 對日政策及 一般思想政策에 對하야 隨時進言할터이라 한다 (寫眞은 胡適)

人事·集會

◀富田直亮少佐(新任總督府御用掛) 八日午後十時京城驛着豫定
◀鵜池大籔大佐(總督府御用掛) 洋行中 五日午後 京城驛着
◀藤村益藏中佐(新任陸軍省人事局員) 十日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赴任豫定轉任人事次 六日本社來訪
◀小高五郎氏(黃海道學務課長) 新任人事次來社
◀橫山幸生氏(京畿道地方課長) 新任人事次來社
◀有賀光豐氏(殖銀頭取) 渡東中十一日發歸任
◀大塚源太郎氏(鮮銀理事) 七日午後一時四十五分發大連에出張

總動員係主任엔 井原中佐가就任

總督府官房文書課는 時局의重大化함에따라 事務가 一層膨脹하야 過般 資源調査係를 新設하야 鎭海要港部參謀 桐野中佐가 同係主任으로써 囑託되엿든바 今回 다시 同課內에 國家總動員業務係를 新設하고 軍部와 協議中인데 今回의 陸軍異動에際하야 朝鮮軍參謀 井原潤次郎中佐가 囑託으로써 同係主任으로 就任케되엿다 井原中佐는 朝鮮事情에通曉한 가장 適任者이라고한다 그리고 文書課에서는 따로 防空係가新設되기로 作定되엿스며 近日에 軍部로부터 囑託의 推薦을바더 任命할터로 文書課는 顯著한機構의 擴充을 보는 同時에 事務의圓滑한 運行을爲하야 機構의改革도考慮할터이라고推測된다

南京邦人거이撤退

【南京六日發同盟】南京在留邦人은 時局에鑑하야 이미 婦女子를撤退시켯는바 數日來市內에는 排日空氣가 益益 惡化할뿐으로 邦人의 商取引은 杜絶되엿스며 昨日부터 今日에이르러 殘餘의 男子도 陸續撤退하야 남은것은 大使館員 陸海軍關係者 新聞記者等 特殊한사람들뿐이라한다

潰走한卅八師 再起코저兵力集中

【天津五日發同盟】七月二十九日 天津의 日本租界를 襲擊하엿스나 我軍의猛烈한反擊에 堪耐치 못하고 드듸여潰走한 三十八師의 二十六旅第六百七十八團의支那兵及 抗日保安隊는 다시금再起를圖할려고 兵力을集中함에餘念이 업다고한다

秦○○隊長赴任

【東京電話同盟】陸軍省新聞班長 秦彦三郎大佐는 ○○隊長에 榮轉한바 七日午前九時東京驛發赴任

八面鋒

◇ 平北의 水害 意外로 深刻한듯。
◇ 死者 二百餘、流失、倒壞家屋이 三千五百戶라고。
◇ 農作物의 被害는 凡幾何?
◇ 時局이 하도 重大하니까 世人의 注目도 이곳에 集中되지안는 모양이나、이 罹災者問題도 또한 重大。
◇ 京城府 水源池擴張工事를 不日 入札着工한다고。
◇ 벌서부터 말해오든것이니 하루바삐 實現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 給水는 잇스되 水道管이작어서 給水못되는곳이 許多。
◇ 嘉會町、杏村町 一部에는밤 一、二時가 되어도 물이 안나오니 이 食水難을 如何?
◇ 女子商業 弘濟町에 新校舍짓고 移舍하엿다고。
◇ 그 隆運을 祝禱。

二十九軍의兵力 八萬이三萬으로減少

【東京電話同盟】皇軍에게 膺懲된 二十九軍은 蘆溝橋事件發生當時에는 其兵力이 八萬이라 고하더니 各處의 戰鬪에서 敗北을 繼續하야 三日馬廠 保定方面에 集結한兵數는 三萬이라 고하는바 皇軍의 猛襲이如何히激烈하엿든가를 可히 알수잇다

天津治安維持會 近日實務開始

【天津五日發同盟】天津治安維持會는 四日各部屬의 配置를 決定하고 六日中에 各科長의人選을 完了하엿스므로 곳實務를開始케될模樣이다

衆議院에提出 第二次追加豫算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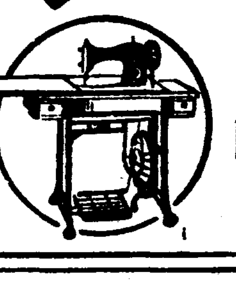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五日閣議에서 決定한北支事件費第二次追加豫算을 上奏御裁可를經하야 同日午後衆議院에 提出하엿다

一、昭和十二年度歲入歲出總豫算追加案(第四號)
一、昭和十二年度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追加案(特第四號)
一、豫算外國庫負擔으로될契約을要하는件(追第一號)

共軍에軍費支給 抗日作戰에參加

【天津五日發同盟】徹底的抗日을決定한南京政府는 中央軍을大擧하야 北上식히는同時에 陝西의共產軍과妥協하고 軍費五十萬元을支給하야 抗日作戰에 參加시키기로 決定하엿다 共產軍의巨頭彭德懷는 目下南京에서 國民政府首腦部와 協議中인데 陝西의共產軍은 近日中에 移動을開始할려이며 또中國共產黨은 北方支部에 檄을나리여 平津地方의治安攪亂工作에 活潑한活動을 開始할것이라하야 그趨勢는 注目된다

朝日ミシン合名會社 本社 大阪市旭區赤川町八丁目
アサヒミシン (아사히미싱)
最優秀新型 三十ケ年保證 給來品의半額 型錄進呈
販賣店募集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豐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슴
本社營業局直通電話 本局②六三八一

빅타ー 薛道植 北國萬里
李圭南 어서가자나기야
(49479)

耳鼻咽喉科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入院室完備

ツバメ寫眞機
實物宣傳期間中無代進呈
體裁よきジャバラ國產優秀品

廣島市堺町電停西側 ツバメ寫眞機商會

小資本經營
健胃强壯藥、頭痛藥、止血藥、痔疾藥、小兒藥、驅蟲止咳藥、眼疾藥、口中病藥、淋疾梅毒藥、痲疾藥、口中香劑、固腸止瀉藥、健胃消滑藥、治濕止汗藥、神經痛藥、皮膚外科藥以上各種賣藥其他藥店向物品取次
委托店及配給特約店을男女老少를勿論하고募集하오니希望者는左記各項을記入하여申込하시요
記
一、履歷의槪況、開業할營業場所
一、投資豫定額特約委托店、支店出張所
一、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신분에게는特別優待합니다
京城府樂園町二〇九(電光九一三番)
各種賣藥 賣藥製劑 卸商 漢城藥舘本店 地方部 白

零細農民의膏血 十五萬圓을詐取

朝鮮繩叺協會大不正事件

坂本會長以下明日送局

루보=농촌진흥(農村振興)과 산업통제(產業統制)의 아름다운 이름속에숨어 소수판본일파의 리익을 도모하야가며 농민대중의 고혈을 착취하야 사복을채우든사건으로 일반의주목을끌고잇든 조선승입협회(朝鮮繩叺協會)내의 부정사건은 지난봄일 사월이래 본정서에서 회장 판본(坂本)이하수명이 주요한취조를받고잇든중 약이개월간에궁한 불미불유의 취조도 륙일로서 끗을마치고 칠일 판본회장과 서본(西本)회계담당을 송국하게되엿다 그밧게 시야(矢野)서무와 경북산업조직회사(慶北產業株式會社)의 평송(平松)은 서류만송국하기로하엿다한다

朝鮮繩叺協會事件送局者

◀京城府蓬萊町四丁目一三一 坂本由藏(五四) 背任橫領、恐喝、詐欺
◀京城府旭町二丁目九 西本政春(四七) 背任橫領
◀大邱府八雲町一〇 平松茂助(五七) 不拘束
◀京城府蓬萊町四丁目五二 矢野一義(五〇) 不拘束

조선승입협회회장 판본유장이 주동자가되어 회계서무등까지이에가담한후 협회의돈 십여만원을류용하야 자동차부야방등을경영하엿(金融안이라 사사러행비유흥비등을 전부협회에서 지출하게하야 이것만도 삼만원을 초과한다는것은 임이보지에 상세히보도한바로 서본회계기타여러인물들이 개별적으로 횡령한돈을 이에합하면 약십오만원의피해를 조선농민이 입은것이다

주모자판본은 대분현(大分縣)에사는 구차한농부의 아들으로 출생하야 명치 사십이년 전남라주(全南羅州)에 건너와서 농사개량을 목적으로하는 영농사조합(營農社組合)이라는것을조직하야 어례세력확충에여념이업든중 소화삼년경부터는 총독부 농림국(農林局)의삼정(三井)천전(千田)석총(石塚)기사등의 후원을어더 사업을확장하는척하며 사복을채우와다

이때 조선에서는 승입(繩叺)의 생산증가와 가상의 발호로총독부에서 이에대한 대책을강구하게되자 판본은 소화오년에총독부 지도하에 조선승입 협회를 조직한후 군소(群小)회사를압박하야가며 부당한 리득을하여온것이다

그후 전조선십일개소회사를 조종하야가며 만주(滿洲)또는 일본내지에 일등품을 판매한후에 이등품의 가격을매주(賣主)에게 주고 매주(買主)에게서 막대한 뇌물을 바다먹엇다 이에대한불평이 나오는경우에는 회사의존폐(存廢)문제를가지고 공갈하엿다 판본은이가튼 수단으로현재약사십만의 사재를 축적하고 잇다고하며 소화길편과 구변에 시내에서 사용으로자동차를타고 협회로하여금 지불케한것만이칠백회가 넘는다고한다 또한그가 증뢰(贈賄)의 죄명을짓게된것은 소화구년사월이십일 당시총독부식산국상공과 모기수에게 삼백원의뇌물을바친것등이라한다

서본회계는 판본의 부정사실을 아느니만치 삼천원 혹은 사천원식 수회에걸처 횡령하엿는데 서본이가 이사건이전에 업무횡령으로 본정서에 체포되엿슬때에도 판본이가 협회의돈을 유용하야 보충한후서본의 친척이 보상하엿스니 석방하여달라고 당국을 기만하려든사실도잇섯다하야 철두철미악(惡)으로얼거진 생활도야말로 판본의 생활상이엿다

各地文廟總動員 非常時局을宣傳

特히儒林들의時局認識을目標

中央情報委員會活動

유림(儒林)관계방면에 비상시국을 선전하고자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연구중이든바 오는 십오일 경학원(經學院)을 비롯하야 전조선각지 문묘(文廟)에서 일제히 시국에 대한 강연을 행하야 일반유림으로하야금 시국인식의 철저와 총후봉공에 대한것을 환기하는일방 경학원(經學院)과문묘에서는 매월일일십오일량차전배할때마다 분향한후 서원문(誓願文)을 봉독하야 전조선오백문묘를 중심으로한 십만의 유림을 총동원하야 비상시국선처에 당하도록 할터이라한다

중앙정보위원회에서는 북지사변에대한 해외론평을 조선문혹은한문으로 번역하야 각지고유림들의 기관에배포하야 시국인식에관한관념을 환기할터이다

軍事後援會 本格的活動

경성부에서는 비상시국에 직면하야 각종단체를망라하야 경성군사후원연맹(軍事後援聯盟)을 결성하야 후고의 염려업도록하기위하야

一、황군의후원을 철저강화할일
二、응소(應召)군인과 가족또는 유족의부조위문격려、취직알선
三、군인의 송영접대에 노력하기로되여 위문금 위문대국방헌금을 모집하기로되엿는데동

第四日白寬洙氏

今夜의時局講演放送

북지사변이이러난이후로 시내에 잇는 지명의인사들이 각기DK 마이크마페나서서 일반대중의시국인식을 정확하게하도록 부르지저왓거니와 금칠일은 시국강연방송제사일로 오후여덜시부터 동아일보사장 백관수(白寬洙)씨가 방송을할터로 대체내용은다음과갓다

북지의 풍운은 갈수록 험악화함에따라 우리조선인으로서는 각별히시국에 선처하야일본이 동아의안정세력인것을철저인식하고 총후의봉공에유감이업도록하자

北支事變畵報를 各初等校에配付

邑面事務所揭示板에도貼付

時局認識을助長

중앙정보위원회에서는 각신문 통신기타에 오는북지사변의 사진을 전조선각지 공립보통학교 또는소학교에 배부하야 선생들이 아동들에게 설명하야 들려주어서 아동들로하야금 시국의 인식을 철저케할터이며 도가도 읍、면(邑、面)사무소 게시판에도 매일붓처서 북지사변의 사진을 가려붓처서 일반통행인기타 주민으로하야금 북지사변과 시국인식의철저를 환기할터이라는 어경비가 매월륙백원이라한다

軍司令部에愛國獻金 五十九萬圓突破

防空機材費만五十五萬圓巨額

북지사변이래 조선군사령부에 드러온 여러가지 헌금은 사일까지에 총액오십구만칠천일백팔십칠원이십일전에 달하엿는데 그가운데서 조선방공기재비(防空機材費)는 오십오만이천사백팔십칠원오십사전이엿다는데 겨우 이십여일동안 드러온 돈이 만주사변때의 일개년반동안 드러온액수에 해당하다한다

부미천수산과장(梶川水產課長)을 발돈하고관헌의일원상자(약일만륙천통)를 북지에가잇는 제일선부대에 보내기를 희망하엿슴으로 동과에서도 크게감동하야 이위문품수송에는 특히 총독부어업감시선 조풍환(朝風丸)으로 준비가끗나는대로 어상열내에 북지로 보내기로되엿다

同德同窓會 시내 창신정(昌信町)동덕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래팔월십일오후세시에 이학교졸업생동창회인 동진회(同進會)를개최할터이라는데 회원들의 다수참석을기다린다고한다

통조림業者等 現品으로慰問

[illegible] 조선내수산물통조림업자대표자어시리에 [illegible] 총독부의 [illegible]

水仁線營業開始

六日부터一般運輸營業取扱

수원(水原)이천항(仁川港)사이의 오진키로에 부설한경기철도 회사(京畿鐵道會社)의「수인선」은 륙일부터 운수영업을 개시하기로되엿다한다

出征會員死傷者 吊慰對策을樹立

鐵道親友會의壯擧

철도국직원 이만오천여명의「멤버」로 조직된 철도국우회(鐵道親友會)에서는 회원이일치하야 결의하고 그회원사업중 위안(慰安)오락(娛樂)등을 모다 중지하고 그돈부터 어든바 만삼천여원을 기금으로하야 출정회원이 전사혹은 전상한때에는 그것으로 조위(弔慰)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되엿다한다

國防獻金遝至

◀룡일 룡산서보안계에 드러온 국방의연금헌금자는 다음과갓다
◀부내한강통(漢江通)십오번지 식량우정(植田莊敢)씨는 십오원을 헌납하엿고
◀부내고시정(古市町)사십삼번지 강도경(?)씨는 삼십원을 헌납하엿고
◀부내룡강정(龍江町)일정목칠십륙번지 리상득(李相得)씨는 삼십원을 헌납하엿고
◀부내 영정(榮町)이십이번지 등천수하자(藤川須賀子)、등천류월자(藤川六月子)는 오원을 헌납하엿고
◀룡산근차회원(?)생도 일동은 십일원이십오전을 모아가지고 헌납하엿다
◀오일 동대문서에 들어온 국방헌금

一金卅二圓 蓬萊町培英學院職員生徒一同
一金五圓 惠化町一〇九의一 孫斗玉氏
一金卅圓 昌信町六二六의七 德成學院生徒一同

가튼날 종로서에 들어온 국방헌금

一金百圓 苑西町二二 [illegible]氏
一金十圓 仁寺町一三七의三 [illegible]氏

◀부내례지정(禮智町)[illegible]구락부(俱樂部)대표 [illegible]씨는 돈오십원을 자기가 돈이원과 합하야 오일에 조선군사령부에 방공비로 바첫고
◀부내아현정(阿峴町)조선주조회사(朝鮮酒造會社)에서는 돈삼천원을 바첫다한다

十歲兒溺死

[illegible]

龍山署서逮捕한 蓬萊町强盜犯不起訴

永永迷宮으로드러간殺人强盜

살인강도죄로 송국된 리호영(李虎永)은 진범인이 아닌것이 판명석방되야 문제중의 봉래정살인강도사건은 또다시 해결되지못한채 미궁에 들어가게되엿다 지난이십륙일 부내 룡산(龍山)경찰서로부터 살인강도혐의로 송국되여온 충남 아산군 음봉면 갈사리 당년 이십일세의 리호영은 지난일 부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삼십삼번지 담배가게 채인서방에 침입하야 상점에 침입하는 아식도로 그를찔러 죽이고금품을 강탈한 진범인이라하야 살인강도죄로 송국되엿는데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국되여온후 주견(酒見)검사의 엄중한취조를 바더오든바 드디여증거가 불충분할뿐만아니라 사실이들리 [illegible]

修繕依賴바든自動車 無免許運轉타殺人

橋下로自動車와함께轉落

今曉彌阿里에慘事

여섯날새벽네시경 부외미아리(彌阿里)길음교(吉音橋)우에서부내련건정(蓮建町)안동공업소(安東工業所)직공 명륜정(明倫町)일정목십륙번지의 이십칠호리승원(李承元)(二四)이가 경(京)계구천삼백칠십오호자동차를몰고 다리우로지내다가 숭인면상월곡리(崇仁面上月谷里)팔십륙번지 민천만(閔天萬)(五〇)이를부딋치어 다리우로부터 떠러저중상을당하야 즉시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엿스나 곳절명되엿다고하며 자동차도다리아래때러저버렷다고한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시내경일(京一)택씨외수선공장 자동차수선업을 경영하는 안동공업소에 얼마전에수선을 부탁하여온것을 이날밤에 수선소주인 김해수(金海洙)가전기사고를 내인 직공리승원이를 운전면허업슴에도불구하고 운전을 식혀 동소문밧게사에 놀러갓다가 김해수는리승원을다시시내로 보내여 승객을가저오라고 십부림을식혓는데 돈을가지고 회계사로 오는길에 전기다리우에서 사고생긴자동차의 바퀴한개가 빠저다려나는 바람에 참외를 지고아프로오는 민천만이를 치어떠러트린것이라 하며기적으로 운전수는 무사하엿다고한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전기 면허업시 운전을하야 사고까지내인 리승원이를 붓드러다가 취조를하는일방 엄벌하려는방침으로 경관원이 현장에출동하야 검증중이다 (사진은 자동차사고현장)

各支線中의一部는 一般貨物도取扱

京仁、平南、平壤炭鑛、白茂、東海部線等

一般의利用을期待

철도국에서는 이번 렬차운전시간림시변경에 따라 려객과하물(荷物)의 취급을 극도로 일제히 제한실시하고 잇든터이나 경성 인천사이와가티 단구간의선은 다른수송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일반의 불편을적게하기위하야 수송력(輸送力)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일반화물(一般貨物)의 취급을 하기로되엿다한다 일반화물 취급하는선은 경인(京仁)을 비롯하야 평남(平南)평양탄광(平壤炭鑛)백무(白茂)동해중부(東海中部)등각선인데 일반이 만히 리용해주기를 바란다한다

大舘南昌兩市 全-滅-狀-態

增水實로三十八尺

(新義州支局電話)평북삭주(朔州)군내의 수해참상은 그전상이판명되여감을따라 그참담한 전모가드러나고잇다 륙일오후두시 평북도청에들어온보고에의하면 삭주군 량산면(兩山面)대령강(大寧江)상류는현재삼십척의 증수이고 동하류인수풍면(水豐面)은 작일오후에이르러 다시여덜자나 물이불어삼십팔척의 수위를보히고잇다 동일 오후두시까지에 판명된인명사상은 사자일백한명에 중상자삼십일명에 달하는데 이것을면별로보면

◀外南面 死者 七一人 重傷者 一九人
◀南西面 死者 八人 重傷者 三人
◀南山面 死者 六人 重傷者 六人
◀水豐面 死者 一六人 重傷者 三人

가옥피해는

浸水 一二三七戶
倒壞 一九四戶
流失 七九戶
半壞 一五七戶

으로되여잇스며 대관시(大舘市)는 전시의삼분지이나 전멸되엿고 남창시(南昌市)는 총호수오십호가운데서두집을남기고는전부물에떠나려가버렷다 그리고 군내에서도 굴지되는 교본(橋本)광산에 침수가되여 손해십만원에달한다는등수마의조량은의외로참담한것이잇다

死者二百突破

交通杜絕로調查未及處도만타

平北水害의大慘禍

근년미증유의관서지방대수해는 그참상이 판명되는대로 속속보도하야왓거니와 이에대하야 오일밤 평안북도경찰부장으로부터 총독부에도착된 정식보고에의하면 평안북도십륙개경찰서관내피해참상은 십륙개경찰서원 총출동으로 활동조사중이나 아직전화불통과 교통두절로 조사불능의 지방도 상당히 만흔모양인데서 피해는이이상 확대될것갓지안타하며 오일밤현재 피해참상은 [illegible] 상세는다음과갓다

一、人命死亡 二〇一 行衛不明 一二 負傷五五
二、家屋流失全潰 一三五四 同半潰三三八 同床上浸水六、五五六
三、家畜流失豚 六二八 牛五 馬一
四、田畑流失及埋沒 三三三町步 浸水一、六七一町步
五、堤防流失及欠潰 六七個所(三〇六〇메-틀)
六、道路流失及欠潰 九三個所(四三三九메-틀) 浸水 三一個所
七、橋梁流失及破損 一三個所(八、六九〇메-틀)
八、木材流失 一三三〇尺
九、多獅島鐵道線路流失 三個所(六〇〇메-틀)

天氣豫報

概況 颱風은 黃河와 揚子江사이에잇서서 其勢力은 弱하나 그래도 七四六粍를 보이며 進路를 東北으로 向하야 渤海方面을 襲來할 모양이다 高氣壓은 本邦南海上으로부터 西日本을 거처서 朝鮮에로 퍼지고 沿海州『오호츠크』海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滿洲와 西北國境部는 雨 朝鮮은 晴 中部以北은 曇 日本內地도 흐리기쉽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은 날이흐리고 소나비가잇스며 明日은 날이흐리고 가끔비가 올 모양이다 京畿道全區도 以下同

上과갓다

昨日最高	三四度一
同 最低	二四度七
今朝最低	二五度
今日正午	二九度九

스포-츠欄

都市對抗野球準決勝

大每主催의 第十一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第六日…準決勝의 八幡對川崎戰은 六日午後三時三分부터 神宮球場에서 川崎軍先攻으로 開始되엿는바 結局六A對五로八幡製鐵軍이快勝하야 決勝戰에드러가 新京對東京의 勝者와 明七日午後三時에 對戰케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川崎	3	0	0	0	0	0	2	0	0	5
八幡	0	0	0	0	1	4	1	0	A	6A

普校教員合格者

소화십이년경기도에서시행한 소화교원 보통학교교원시험 제삼종시험합격자의 학과성적가량한자의발표는 아래와갓다

◀合格者 [illegible]

學科成績佳良者 [illegible]

コロムビア 무엇을이저도 이것만은! 音이조코모-타-의조용에定評잇는 本格的포-타블! ¥40. 第二〇三號 第二〇四號 コロムビア レコード 日本蓄音器商會 製造販賣元

九月一日初回くじ 新債券 賣價十圓十五錢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一二八

桃屋의果實罐詰 후루-쓰第一品質 白桃、黃桃、枇杷、西洋梨 후루-쓰사라다 후루-쓰폰치 櫻桃 各百貨店食料品店에잇소 東京 桃屋商會

建築設計 手續施工監督 一切迅速取扱 即接來談又는葉書로通知即時參上 京城桂洞町一四〇 衛生所跡一四 兪建築事務所

釜山腦病院 腦脊髓病科 精神科 入院室完備 院長 醫學博士 近鄕獎太郎 釜山富平町四丁目五八 電話長二八四八

職工募集 男工一〇〇名(普通學校卒業者) 女工 四〇名 男工은 寄宿舍設備잇고 女工은 永登浦在住者 右十六歲以上二十歲까지 品行方正하고 身體健全한者採用함 希望者는 履歷書 寫眞添付하야 左記場所에 持參又는 郵送할事 男工은八月十四、十五、十六三日間每日午前十時로午後三時까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三過日吳商店으로 女工은 八月二十日午前十時 京城府永登浦外九老里 柳町染工場으로來談할事 株式會社 柳町染工場

軍手 ◇專屬織製家募集◇ 手織製는都市農村과男女時期等을不關하고容易함으로 實地軍需製造는需用激增에伴하야더욱有望하며 織物製製家募集中希望者는 案內書請求次第送呈 原料供給製品引受는勿論工場에數種機械를設置實驗함으로其優劣을目前理解되오니御來參觀하시옵을切望 京城府上往十里町七七四(光武劇場裏) 朝鮮手袋工業社

朝報案內 集金 係募集廿五才迄希望者八隨熙書携帶本人來談 アレ但シ保證金三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 面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テ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讓店 時計鋪賣場所 築地 身上不便으로急速讓渡코저함 電光3 一七三九番으로 問議要望 讓寫場 詳細來談 研究次渡東新設町八七 漢陽寫眞館 製藥 事業確實老舖製藥讓渡 家外出資請求함但技術及貴製藥權 其他一切의營業企劃權利讓渡함 可否細面談 京城本町四丁目七一 松本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夜間)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學則要三錢切手 ◎最近校舍新築大擴張(元實踐簿記專修學院改稱)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九月十日晝夜◎學則要三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文編入學受驗準備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一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補缺募集 ◇ 文部省認可 ●第四學年以下若干名 興文中學校 廣島縣吳市平原町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查試驗問題集等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郵送)電本(2)二〇二〇番

7日ヨリ 博多夜船 松竹大船特作品 監督 宗本英雄 主演 川崎弘子 坪內美子 詩の都・藝の都 博多をなんの浮彫姿・夏の夜の情炎物語 空駈ける戀 M・G・M・社超特作映畫 結婚クーデターの操しさにスピーディな感覚を盛り! W・S・ヴァンダイク監督 メトロ三大スターの熱演 クラーク・ゲーブル ジョン・クロフォード フランショ・トーン 七十七時間のストップ・フォックス・トロット! メトロが放つ明朗新喜劇! 北支事變特報 ニュース 明治座 御家族連

若草劇 冷房完備 1 限りなき旅 1・30 4・10 7・15 / 2 東日・大每・北支事變ニュース 南國太平記豫告篇 12・0 2・40 5・25 8・30 / 3 南風の丘 12・15 2・55 5・40 8・45 (一)ワーナー特作 ケイ・フランシス ウイリアム・パウエル主演 (三)PCL特作 高田稔 江戶川蘭子 高峰秀子主演

優美館 六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黃金町 電光三九五 어린이야 웨우니 一幕 우리는어려울때를生覺하고로저感激할것이요다시오늘에어린이를生覺할때!씩씩한標本이되고光明이되오리다 이演劇은父母로서教育家로서全家族이다와서보서야됩니다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五六七七番 八月六日부터三日間(短期興行) 晝間一時 夜間七時半開演 超特選名演劇 雀道劇座 洋劇 울녀라 새벽鍾 二幕 社會暗黑面에무서운싸움!人類의鬪爭!살녀고보채는人間들에부르짓는소리!새벽鍾이울때!모든問題가解決되니 文藝部編 秘密劇本 人類에警鐘을울니는教育劇

◇八月七日부터四日間!! 十日은晝夜三回 大衆料金 階上二十錢均一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版!! (朝鮮語全發聲二大名篇公開) 監督…金蘇峰 撮影…李明雨 出演…朴濟行、文藝峰、韓一松 盧載信、崔雲峰、金蓮實 林雲學、金英淑、李錦哲 春香傳 ◇京城撮影所作品 朝鮮發聲 洪吉童續篇 監督…李銘牛 出演…李錫龍 李慶善 全發聲漫畫

◇八月六日映畫(三日間) 每日晝夜二回 始映(晝一時 夜八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納凉映畫特選公開! ◇米國바이다크라프特作映畫 大陸活劇 猛勇당캉 前篇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畫 現代名篇 前篇十三卷上映(前後篇二十五卷中) 戀の浮島 十一卷 伏見信子主演 特別添附 部會의船歌 往十里町 光武劇場

아라들만한이야기 넥타이빠는법

집안에서도넉넉히될수잇다

매일 땀과 손때로 요사이는 그 비싼 넥타이도 결피하면 때죄죄하게 더럽는데 그러타고 번번이 크리닝을 줄수도 업고 딱한 노릇입니다. 댁에서 빨다가 버리지나 안할까 해서 얼른 빨 엄두를내시지 못 하는 것이지오만은 아래와 가튼 방법만 안 다음에는 그것을 빨기도 여반장의 일입니다.

위선 넥타이가 어떠케 더러웟나를 가려서 기름이나잉크가튼 것이 무든 것은 따로 뽑아서 다각각 그 빼는 법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넥타이가 만흘때는 빗갈이 번지기 쉬운 것과 힌 것을가리어서 따로 빱니다.

(一) 고운 솔로 먼지를 떨고 미지근한 물에 세탁소다를 푼 뒤 한 삼십분쯤 담거둡니다.

(二) 거기서 꺼내서 곱게짜가지고는 다시 미지근한 물에 가루비누를 푼뒤 부비지는 절대로 말고 흔들고 누르고 문질러 빱니다.

(三) 다시 미지근한 물에 소다를 풀어서는 거기다가 헹구어서 비누기를 쪽 빼고 맑은 물에 초를 조금 다서는 또 한번 거기다가 헹구어 냅니다.

(四) 나무판이나 유리쪽가튼데 쪽 펴 널어야 주름ㅅ살이 지지 안습니다.

(五) 그런데 끌른 물에 집어 너헛다가는 빗갈이 변하니까 꼭 미지근한 물이라야 하고 또 볏헤 즉접 쪼여도 퇴색이 되니까 통풍잘 되는 곳에 널어서 바람에 말려야 합니다.

(六) 힌 헌겁을 덥고 다리미로 다리는데 죽죽 문질러서는 못 쓰니까 꾹꾹 눌러 다려야만 됩니다.

동물의간(肝)은 훌륭한강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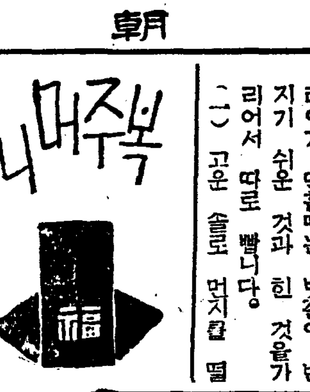
그러나여름에는생선간을

동물의 간(肝)이 아주 훌륭한 보혈제(補血劑)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지오만은 그중에도 쇠간(牛肝)또 그중에도 송아지간이 더 훌륭하답니다. 물론 그것은 비교해 말하는 것이요 그이외 도야지간이나 양의 간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조금도 아닙니다. 비단 도야지나 양뿐이 아니요 닭의 간, 생선의 간가튼 것도 썩 조흔 영양이 됩니다. 날김승 길짐승의 간 이외에도 게란노란자 소금치, 코코아, 초코레트가튼 것들도 모두 보혈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쇠간이나 도야지간이 그저 금방 금방 상하기때문으로 좀처럼 해서는 먹기가 곤난합니다. 설사 상하지를 안는다고 하더라도 비위가 약한 이 때 간으로 만든 요리가 입맛에 댕길 까닭은 업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생선의 간이 더 조흡니다.

산생선의 간은 상하지도 안햇스려니와 다른 간보담도 맛이 신선해서 말립니다 그러고 생선의 간에는 비타민에이와 띠가 만흡니다. 그래서 비타민 에이와 띠는 대개 생선의 간으로부터뽑아내고 잇습니다. 왜 생선을 사서는 그 아까운 간들을 내버리십니까? 그걸 굽거나 조리거나 어떠케해서나 자시기만 하면 여름의 마르는피를 보충할텐데 그걸 내버리시다니 될뻔이나 한 말슴입니까?

허약한사람, 결핵병을 알튼사람들은 한여름ㅅ동안 생선의 간을 만히 자시도록 하십시요. 그러고 혈액을 만히 일허 바리시는 부인네들은 특별히 그만큼 혈액을 보충키 위해서 생선의간을 만히 잡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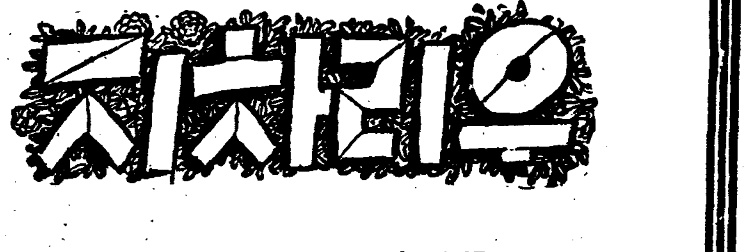


흰벽에 무어이무덧슬때

흰 벽이 더러워 지면 더 더운 것 갓고 구중중한 것 가튼데 연필이나 숫으로 죽 죽 긋고 흙칠을 해 노코 한 것이 얼른 지지를 안 습니다. 애기네들이 잇는댁에서는 그 우스운듯 해도 귀찬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즌 수건으로 다가 지우려고 하니까 빗갈이 점점더 이색지게 되지 그러케말고 간단히 업새는수가잇습니다. 즉 마른생사헝겁에다가 전분(澱粉)ㅅ가루를 칠해가지고 살살 문지르기만하면 얼른알아내지못하드록 감쪽가티됩니다.

早婚風習 나키도전에약혼을하고 남자가죽으면평생수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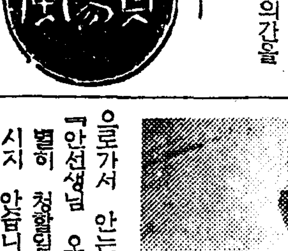
인도는 조혼(早婚)으로유명하니 그저 난지 얼마만 되면 약혼(約婚)을 하얏다가 열살안에 결혼을 하야 버린답니다. 그래서 벌거숭이시절에 고만 그 약혼한 사내아이가 탈콱 죽어나버린다면 일생ㅅ동안을 홀에미로 쓸쓸하게 마치는 예도 그다지 드물지는 안습니다. 그런데 인도보담도 중앙아푸리카의 종족들은 더한층 조혼을 합니다. 즉사내아이를 가진 부모가 애밴안악네를 보고는 아직나치도 안한 피ㅅ덩이를 노코 약혼을 한등시에 납채로 돈까지 내놋습니다 만일 그안악네가 사내를낫는다면 그건 일생의 정다운친구로 지내야하고 또 만일딸을 낫는다면 그건 문제업시 그약혼한 아이의 안해로 가야됩니다. 그종족들은 비단 배ㅅ속의 아이와 약혼할때뿐이아니라 언제나 약혼에는 납채를 내놔야되는 풍속입니다. 보통으로납채금은 일천오백프랑쯤 되는데 그돈이 업는자는 흔히 제누이를 납채금대신으로 내노하서 안해바꿈을하게 되는것입니다.



하늘동리

오늘밤은 하늘에 잇는
동리가 잘 보인다。
집집마다 등ㅅ불이 반
짝 반짝。
커다란등ㅅ불단데는어
될까 정거장 너른마
당인지 옥독끼 야학판
지 아는 어른이업다。
은하수 복판에 웬등ㅅ
불인가 고기잽이 밴가
보지。

(글쓴사람 정교찬)



뻬가세날때!

최근 외국에서 뻬를 어찌 만히쓰는지 뻬ㅅ갑시 버쩍올라갓습니다。 이번전쟁에도 한 키로그람에 미국돈으로 구엽라쯤하든것이 갑짝 삼십칠이나 뛰어서 이십칠엘라반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휴지장사들도 본바닥의 휴지를 집어 치우고 모두 뼈를 모으기에 눈이밝애서 야단입니다。 무더 노흔 김승을 파허치고 뼈를 추리는것은 물론 전쟁터로까지 쪼차다니며 사람의뼈를주서모고 잇는판입니다 그러케 뼈를 사다가는 무엇에쓰느냐고요。 군기를 맨드는데소용이 된다고 합니다。

젓만히내는소

우리가매일 먹는우유는 한 마리의 소로부터 얼마나 짜 내는지 아십니까? 아메리카 스토메스라는 지방어느 대학에서 메이는 에일슈니아종으로 열다섯살된 암소는 웃드바이아이란 이름을 가지고잇는데 그암소가 그 지방에서는 젓이 가장 잘 나는 소로 일년에 우유 일만이천구백구폰드와 빠타 재료 오백팔십삼폰드랍니다。 그보담도 놀라지 마십시요。 그암소가지금까지 일생동안 쏘다논 젓은 우유가 육십구톤과 빠타재료가 삼톤이나 된답니다。 그런소는 첫재 터이기를 잘해여야합니다。 그래서 그대학에서는 매일 그소데접으로 돈을 푹푹 쓰고잇다니까요。

長篇小說 찔레꽃 【95】

金末峰作 金熊超畵

영혼의시장(六)

영혼의시장 六

식당에는 경구가 날로에다무연탄을 너코잇다가 아이들을맙세우고 드려오는 정순을보자회동그래 보고 빙그래우스며 식탁으로가서 안는다

『안선생님 오늘저녁에는 좀특별히 청할일이잇는데요 바쁘시지 안습니까?』

하고 또한번 빙그래웃는다。

『안요 별로바쁘진 안습니다』

정순도 태연히 우서보엿스나 속으로는

『또 민수와 경애에게 대한결혼문제가 나오는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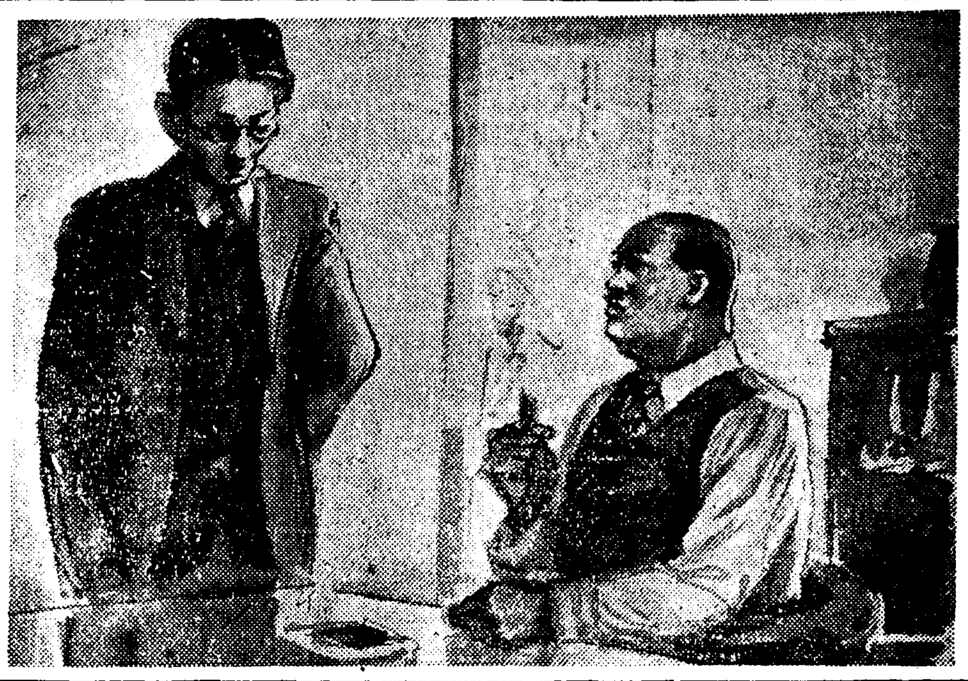
하고 그는 속이따끔 하여지는것을느끼자 고개를 탁숙이고 자리로가서 안잣다

『저ㅡ 오늘저녁에는 제친구들이한십여명 모일텐데요 괴로우시지만 차를좀 만드러주섯스면 해서요』

『네ㅡ 만들겟습니다다만 솜씨가변변치못해서……』

혼자말가티 중얼거리고 정순은 웅길에게 나프킨을 채와주엇다。

『천만에말슴을 정말입니다 안선생님의차만드시는데는 무슨 비법(秘法)이 잇슬상도 시픈데요』



경구는 국그릇을 약간 아프로 다가노으며

『오늘저녁에는 제가 써ㅡ비스를하죠 그대신 나중에 안선생님께서 제손님 써ㅡ비스를 좀해주십시요 경애에게도 부탁은 해노핫습니다』

경구가 이런말을하고 반찬그릇에 저까락을너허 정시에떠노흘때 경애가 문안으로 드러섯다。

『오빠 아버지께서 불르세요』

하고 정순을 보고 생긋우스며 식탁으로 와서안는다。

『나를?』

『네ㅡ』

경구는 이러서서 복도로나갓다 서재에서 무슨서류인지 읽고잇는 아버지는 웬일인지 오늘만은 얼굴비치 몹시 그뭇되여 보엿다。 경구가 가까이 오는것을 보고도 잠자코 서류만 훌터보든 조만호씨는

『거기안거라』

하고 아들에게 턱으로 자리를 가르친다음

『너 이것은 네가친필로 내게 보낸글이냐?』

하고 책상설합에서 길다란봉투를 꺼내놋는다。

경구는 편지를 힐끗보더니

『음ㅡ』

『네ㅡ 제손으로쓴것입니다』

조만호씨는 천천히 고개를드러 아들의얼굴을 한참동안 치어다보더니

『얘 경구야』

『네ㅡ』

하고 친착하게 불럿다。

『너 돈이십만원이면 얼마인줄 아니』

하고 교의에 깁처 기대안즈며 담배에 불을부친다

『……압니다……』

『그래 알면말이다 웨 그러케 만흔 돈을 청구햇느냐말이다 난 그게궁금해서』

『아버지 제가 올린 편지를 읽어보셧스면 제가 그돈십만원으로 무엇을 하겟다는것쯤은 이해하실줄 밋는데요』

『허허허 자식 네나이 삼십이냐 사십이냐 아직도 미장가전 새파란 젊은아이가 글세 십만원으로 농촌사업을 운운하니 그게 될말이냐? 공연히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구 남들이 광산을해서 수백만원씩 척척 버려드리는바람에 돈십만원씩이나 내놋는 서슬에 너도 어깨바람이 낫나보다만……아직은 일른다일 럿』

잠자코 아버지의 의견이라니보다 오히려 비난에가까운 설명을듯고잇든 경구의눈섭은 꼿꼿이 이러섯다。

『남들이 광산을해서 수백만원을 일시에버럿다고 그돈이결코 아깝지마란법은 어데잇습니까 또 아버지의재산은 제가 영업을할때에 백만원이든것이 지금한 구년동안에 또다시 더백만원이 느럿다는 것은 적은일입니까? 구년동안에 백만원이면 일년에 십일만이 훨신더 드러오신셈이죽 아버지의 일년수입만 사회를 위하여 내노흐시란것이 잘못입니까?』

『……』

조두취는 어이가업는듯이 담배만 뻑ㅡ뻑빨고 안젓더니

『그러타면 말이다 혼인부터먼저해라 혼인만하면 나도또생각이 잇슬테니……』

『그럼 제가 혼인만하면 십만원은 주시겟습니까?』

『음ㅡ내가 일직부터 네게말한 그규수와 결혼만한다면말야십만원 뿐이겟느냐 내재산전부는 전부네것이아니냐 내가죽은뒤에는…너도알겟지』

경구는 무슨말을하다가 홍조입을 다무러버렷다。 그의얼굴에는 확실히 고민의비치 드러낫다。

『아버지가 일직부터말한규수!』

그는 유희다 아ㅡ정순씨!』

속으로 부르지진 경구는 지금 바야흐로 사랑과사업이두가지중에 그하나를 취하지안흐면안될 절체절명에 이른것을 느끼엇다。

産業雄都의開城面貌

高麗朝五百年舊都 産業都市로萬丈氣焰

商民은人蔘을中心으로家族的統制下에 外來商權의伸展不許

開城은高麗朝 五百年間都邑地다 한때全盛時代에는 百十萬戶長安을 일우워「營構」三十餘里를 家屋이 連接하야 雨中에도 衣不濕하도록 비안맛고 단엿다하니 實로 雄大한 都市엿섯다 그러나그후 끈일새업는 內憂外患은 여러번兵亂의侵略을 보게되바 民家는踐踏되고 宮殿은灰燼되여 李太祖三年에는 고만京城으로遷都케되자 그후開城은 쓸쓸한 火爐와가티 슴슴한 고장이되고말엇섯다 이럿듯 衰廢되엿든 開城이 오늘날 六萬人口를算하는 産業의雄都로 捲土重來의 雄姿를보히게되것은 百藥의王! 高麗人蔘의 販路를 開拓시켜 經濟的土臺를 튼튼히한때문이다 그래서오늘날 開城하면 人蔘! 人蔘하면 開城! 할만큼 高麗人蔘의 聲價는 놉하저서年生産額 四百萬圓을 突破하고잇다 이외에開城은 白菜의名産地로! 最近에果樹栽培熱의 旺盛으로! 그收入도 數萬圓을 算하고잇스며 또는朝鮮內有數한 商業都市로 發展相을 보히고잇다 그러중에 民心은團結되여 一家族과가티 서로도읍고 살어가는바 絶對로 外來資本의 伸展을 制限하야 純粹한 開城人만의商都를 形成하고잇는곳도 全鮮을 통트러도開城밧게업슬것이라본다

人口는 每年 一千五百名식이나 激增되여 市街地中央에는 周密한 家屋이 飽和狀態를이루워고 府外近方開豊郡一帶도 漸次都市로 色彩가濃厚하야今秋에는 現在의 面積(四百萬坪)倍以上으로 行政區域을擴張시켜 龍興、古南、嶺前里一部와德岩里全部를 府域으로 編入케할것이라는바 이都市計劃이 完成되는날은 大開城이再現될것이다 그나그뿐이나― 伸展하는府勢에따라 今年은 昨年倍以上인 五十八萬圓의 尨大豫算을投하야 府廳舍新築 南北線路改修、高麗公普新設 生藥研究所 警察署廳創設等等!各界社會施設을 陸續新築할것으로 가을에드러선 大開城! 建設曲이 明朗할것이다

沿革

高麗太祖二年에 鐵原으로부터 松岳의南麓에 遷都하자 開州라 稱하엿다 그후 光宗十一年度에 皇都라 改稱하고 成宗十四年에는 開城府라 하얏다 顯宗元年에 契丹의 侵入을바더 宮闕、民屋이 殆半이나 燒燼되여버려서 同九年度엔 開城府를 廢하고 縣令(郡守)을두워 貞州海水、江陰三縣을 管轄케하고이여서 商業都會를 直轄케하든것이 文宗十六年에 다시 開城府로 復古햇스며 忠烈王三十四年度엔 府尹及 官吏를 配置하야 都城內를 管掌케하고 또따로히 開城縣令을 特置해서 都城外를 管轄케하얏다 恭讓王二年에 京畿를 左右道로 兩分할때 開城縣을 右道로隷케하얏다。李太祖三年에 開城으로부터 漢陽으로 遷都한후 松都라 改稱하얏다。爾來! 李朝五百年間 歷史的 變遷過程은 或은府로!或은縣으로或은 郡으로! 어러케名稱을 달리해내려오다가 大正三年四月 四都面을 合併해서 松都面이라稱하고 同時에 從來十二里(太廟、八字洞、京坊、都助、鄭壯、九里介、濯道井、館前、池波、梨井、蔣寶、城隍里)를 十三町으로改稱하고 町長을 두자 四年! 그후大正六年十月에는 指定面이되여 町長은 區長으로 變케되엿다 그후 産業振興 人口增加에 따라 昭和五年十月府制를實施하고開城府라 改革한후 一躍發展途上에잇는 産業의 雄都로 오늘날 文物施設이 完備를 보게된것이다。

貿易

(昭和十一年末統計) 輸移出=二、六九八、〇三五圓 輸移入=四八一、一八〇 輸出=三、三九九、六九〇 輸入=八、〇六〇、一九九

通信

(昭和十一年末統計) 郵便物發送數=三百八萬三千九百五十八通 郵便物配達數=二百十一萬二千百六十九通 前記數를比較하면 配達數보다 發送數가 九十七萬一千八百八十九通의 壓倒的激增을보힌것은 人蔘月報通信物이 每月數萬通式特別取扱되는때문인바 開城에 人蔘宣傳熱이 膨大해잇다할은 能히이로써알일이다

交通

開城區域의 道路總延長은 十二萬二千一百十

人蔘原産地에서 東洋第一藥都에

勿驚年數總額四百萬圓

開城의近郊一帶는 天惠的으로 氣溫、風土、地味가 人蔘生育에 가장適合한곳이여서 그栽培熱이 年年增加되여잇는중 昨年生産高를 一瞥하면 다음과갓다

人蔘耕作高(耕作人 耕作坪數)	一、二九〇人	一、八五三、五〇〇坪
白蔘生産高(數量 價格)	二四四、五四六斤	一、五三六、〇六八圓
紅蔘生産高(數量 金額)	五五、三六八斤	一、三二〇、六八五圓

以上總生産額을본다면 실로四百萬圓을突破케되니 人蔘은 開城의生命線이라안할수업다

그러든것이近年에와서 一部奸商輩들의 詐稱販賣와 競爭的亂賣로 말미암아 蔘業界는 한때窮況不振한가운데내려와섯든데 製造及販賣의統制로서 窮況을打開하기위하야 昨年十一月開城蔘業株式會社의創立을보앗고 今春五月 人蔘販賣組合의 創立을보게되여 開城蔘商의販賣權을 絶對獲得하게되엿바 以來 蔘界는 一層活氣를띄워 豫想外로 販賣成績이良好하야 十五萬斤의 生産品中벌서十餘萬斤이 팔렷다한다 이와가티 改革一轉한開城 蔘業界는 방음 用意周到한 新經營方針으로 特히日本內地 外國에 販賣宣傳을 注力하고잇다。

그러중 近來 開城府當局은人蔘과함께 漢藥方面에까지 注力하야 府外에京畿道立 藥用植物研究所를 創設하고 約四萬坪의廣大한 面積에 百三十餘種의主要藥草를 栽培하야 宛然 近郊一帶는 植物園을 聯想케하는중 더욱어 今秋엔十萬圓工費로 京城帝大生藥研究所가 施設될것인바 今後開城은 名實共히 東洋第一의 藥都로 萬丈의 氣焰을吐할것이라본다

◇…朴淵瀑布의壯觀

◇…善竹橋

史家의巡杖이끄는 麗史血痕의古都

名勝古蹟은어디어디

高麗半千年의 恨만흔 盛衰史를 背景으로한 開城은 高麗朝二十四代의 아득한옛날 그當時로부터 活字術、高麗板 大藏經、高麗燒磁等! 高麗燒磁의 文化를 形成하야 藝術史上에 一大黃金時代를 現出하얏든곳이다。그러나 그후 壬辰 丙子等의兵亂등에 宮殿 樓閣寺院等이불구덩어에 燒燼되여 버려서 秘藏되엿든 珍貴한藝術品도 大部分 消滅되엿스나 그래도 그外的形骸만은 到處에 點綴散在해서 어麗史血痕의遺跡이 探勝客의 눈을끌고 同時에 一石一木이 모다 由緖깁픈 遺物로 史家의巡杖을 머물게한다 그러면 번여기에 順次로名勝古蹟을 더드머보자!

車輛은 얼마나되나보자 ◀自動車 四一臺 ◀自轉車 三、五九三臺 ◀上乘客 三十二萬八千二百九十八人 ◀下乘客 三十萬九千二百七十四人 (昭和十一年度統計)

戶數와人口

行政區域=高麗町 滿月町 北本町 池町 東本町 南本町 南山町 元町 京町 大平町 西本町 大和町 宮町(合十三町) 戶數=一萬一千三百四戶 人口=五萬五千四百八十一人 (昭和十一年末現在)

◇…南大門

開城 中央地 十字路에 古色蒼然히 屹立해잇는것이 南大門! 李太祖가登極한지 二年만에 建築한 朝鮮最高의 建物로서樓上에는 大梵鐘이 노혀잇다 이鐘은 高麗忠穆王二年(五八七前)當時 演福寺의 鐘을 改鑄해서 移懸한것인데 원체 名工의 솜씨로 鑄造되엿고(慶州鐘閣의鐘 京城大谷派本願寺의 鐘、廣州鐘閣의鐘과가티)四名鐘에 하나꼽는 珍品이다

◇…滿月臺

五百年間半島를 統治하든 高麗朝歷代의 宮殿趾가 滿月臺다 松岳山麓을 南으로背景삼고 堅壁城가운데 드러안젓든 金殿玉樓가 第三十一代 恭愍王朝 賊亂에 灰燼되여 버릴줄이야。그래서 지금은 겨우 破碎된 礎石만이 形骸가티 남어잇슬줄이 뉘라서 뜻하얏스랴。그나마 어제는 욱어진 雜草에 파무첫스니 풀숩을 헤처가면서 宮址의 面貌를차저볼수밧게 업시되엿지만 當時 어王宮의 雄麗의 美를 極햇섯다함은 殘存한石階 石壇의 趾跡으로 써도 足히알일이다

◇…善竹橋

高麗末名臣鄭夢周先生이 恨스러운 죽엄을당한곳이다 녯날이가튼 忠魂들의 흘닌피는 風磨洗雨에도 가싯줄을몰랏든지? 아즉도 이石面에는暗赤色의 血痕이 뚜렷이 나타나 鄭圃隱의殉死를 말하고잇다 그후 先生의後孫 留守鄭好仁이가 이다리에 石欄을 둘러차고 그옆에 따로히 小石橋를 架設해서 人馬를이곳으로 通行케하며 蹂躪을 嚴禁케하얏다 다리의 西편쪽인李朝英祖와 李太王의 忠節을記錄한 雙立의 碑石이잇다

英祖 御製御筆 【道德精忠亘萬古 泰山高節圃隱公】

太王御製御筆 【危忠抗節 光宇宙吾道方賴有公】

◇…朴淵瀑布

朴淵은 開城府北 三十里쯤되는곳에잇다 하늘을찌를듯이 蒼空에 솟은 崇高莊嚴한 天磨聖居 兩山이 치마폭가티 둘러쌉은 골자우니에서 흐르는물이한데합치고모혀 아주까마득한石壁우으로 미끄러져떠러저 一落萬丈을일우니 죽이곳이 朴淵瀑布다 흰폭가르를 펼는듯한 飛沫은 여름을고만잇게되고 우뢰가티[illegible] 우뢰소래는山谷을 울리고 귀미어리를 멍멍케하는다 高麗千年의 歷代에 이처럼奇絶한 仙境이 잇다는것은 開城의 보배로운 자랑거리다 더구나四圍를 [illegible]한 千[illegible]의 奇岩怪石! 어바위양달쪽에피는꽃의「진달래」―가을의丹楓! 여름의 욱어진綠陰은 번가려가며 이仙境의 美를 도와주고잇서 [illegible]神仙의 別有天地가 예런가싶다 그때문에오늘날朴淵을 開城의 金剛山이라 할도 決코 誇張한말이아니다。그러중 朴淵은 傳說美까지 豐富히갓고잇다 옛날 朴進士란어의 名笛소리에 어꽃못속에龍女가 고만반해서 美姬로 둔갑해 나타나 朴進士와 百年佳約을 매저가지고 다시못속에드러가살게되엿다 朴淵이란 名稱은이로부터 생긴것이다 또아래朴淵큰바우엔「飛流直下 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여러詩句가잇는데 이글시는朴淵과함께 松都의雙絶로꼽는 名妓〃黃眞伊〃의 筆蹟이라한다

◇…博物館

高麗朝의 古典的色彩가 뚜렷한 建物에 子男山陽地高臺에 걸려안젓스니 여곳이 開城府立博物館이다 開城初代府尹 金秉泰氏가 府民有志에게 斡旋努力하야 昭和六年十一月一日 義捐金約二萬八千圓을 辦出해서 드되여오늘에여가티 雄麗한古蹟遺物陳列館을 設立한것이다 館內의 陳列品은 主로 高麗朝의 遺物로그중 高麗燒磁가 第一만히잇는중 靑銅鍍金佛像 佛具靑銅器、鬼面瓦等은 當代의名作라한다 이外에 秘藏珍品이라할만한 高麗忠臣 鄭圃隱先生及 그의門人 吉冶隱의 勁健한筆跡도잇서서 儼然한 異彩를보히고잇다

×

以上紹介한 古蹟外에도 太祖顯陵 共愍王陵 姜邯贊塔 敬德宮

◇…博物館

不[illegible] 文化遺産等 許多한곳이 만코 名所로는 開城驛前에 [illegible]을 비롯하야 [illegible]亭 彩[illegible] 扶山洞等約[illegible] 等 遊覽客의 [illegible]要[illegible]인 곳이 만흐나 紙面關係로 모다 略함이 遺憾이다。

◇…成均館

善竹橋로부터 東北約八町가량가면 成均館이되다 어곳亦 三十一代恭愍王當時 有名한儒學者 鄭夢周 李穡先生을 敎官으로해서人材를만히 養成하든곳이다 그후 李朝宣祖時 壬辰亂의 兵火로 廟宇가고만灰燼되고 단지東西齋만 남어잇는것을 爾來屢屢히 改修하야 오늘까지 遺跡으로 保存되여잇다

◇…崧陽書院

어곳은 圃隱鄭夢周先生의 사시든邸址로 子男山 미테잇는데 李朝宣祖六年에 留守 南應雲이가 처음으로 書院을 建設하고 「文忠堂」이라稱하얏다 그러나 同八年에 扁額을賜해서 崧陽書院이라 改稱하야 鄭圃隱先生의 影像을 奉安하고 先生이平素에 길둥구를사든 竹杖을 어곳에 保存해두워다

◇…穆淸殿

李太祖의 舊邸로서 第三代太宗時에 이곳을修築한후 穆淸殿이라稱하얏다 그리고 太祖의影幀을 奉安하엿섯는데 壬辰亂兵火에 그만燒失코말엇섯다 그후 孝宗及顯宗이 어곳을다시 修繕하고 肅宗의 御親筆인「穆淸殿不磨慶之碑」란 碑閣을建立햇다 그후 光武六年에 有志들의發起로 다시 重修하고 다시太祖의 影像을 秘藏해두고 每年祭典을擧行하드니 明治四十一年에 그만이것도 廢止되고말엇다 現在는 京畿道藥用植物研究所로 利用되여 數百種의 藥草가陳列되바 藥都化하는 開城에標本室이되여잇다십히되엿다

◇…逝斯亭

저―有名한 麗朝道學者 徐花潭(敬德)의 遊息處로 지금도어직 그亭子가 遺存되여잇스니 어곳이 即『逝斯亭』인것이다 여亭子附近엔 石壁으로 둘러싼花谷書院이 남은形態나마 그대로남어잇고 花潭에 낙시대를는리우고안저 閑日月을보내든 水磨石의 釣臺도 옛모양 그대로남어잇건만 黃眞伊의戀人―花潭은 그어데간고?……울어예는물소리가 山谷間의 靜寂을울리며 悠長히흐를뿐이다。

(五面繼續)

初等教育機關完備 專門校업서遺憾

生徒總數八千名突破

開城은 風光이 明媚秀麗한품이 敎育都市로 第一適合한곳이여다 어러한敎育都市에 오날까지 專門學校施設하나업다함은 實로遺憾스러운일이나 初等學校施設만은 어느都市보다도 完全을보히고잇다 昨年入學率로만보드래도 志願兒童의七割을 能히收容하얏다함은 事實이잘證明하는바다 現在學校數는 十三校―이外幼稚園이 六個所―이를 종합친다면 生徒數는 實로 八千名을突破하는바 그內譯을보면 如左하다

松都高普校	六九七名
好壽敦女子高普校	四二四
開城公立商業校	四一二
開城尋常高小校	三四〇
滿月公普校	一、四八九
元町公普校	一、二七八
宮町公普校	一、〇〇〇
松都普通學校	四五五
中京普通學校	四四四
好壽敦女普校	四三八
貞和女子普校	四四五
美理欽女學校	一五六
高麗公普校	(今秋新設)

▲徒總數 七千六百四十八名 ▲其他園兒數 四百餘名

그로 敎育開城의嚆矢!〃松都高普〃와 〃好壽敦女高〃의 幼稚園은 三十年前 그搖籃時代를 더드며 至今에 發展現狀을 對照해보기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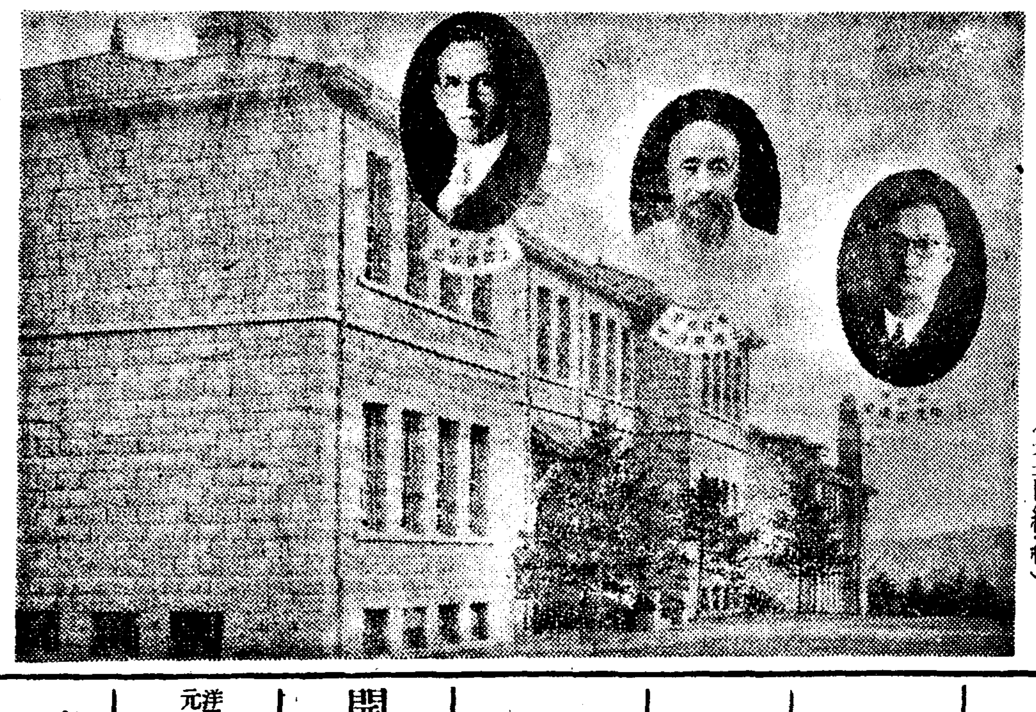
旭日昇天의 松都高普校 設備는朝鮮第一

▲松都高普校=三十餘年의 歷史를갖고 近千名의 人材를 培養시킨 敎育機關이다 光武十年美國〃알〃宣敎師가 自己家屋一偶를 學校로代用해서 所謂韓英書院이란 私學을 創設햇슬當時는 卒業生은 겨우三名에不過하얏섯다한다 그후 院長尹致昊、王永德氏를거처게되자 約一百名의 生徒를募集케되고 大正六年三月엔 總督府의認可를어더 松都高等普通學校라改稱하얏다 그후大正九年에 五百七十坪의敷地에 花崗石三層校舍를 新築하고 이어서 雨天體操場新築、博物敎室―理化學室、實驗室等의特別敎室을 擴充하얏다 昭和八年三月 現金庚玉校長이 就任하자 開城實業有志의 赤誠으로七十萬圓의 財團法人을 組織完成케되고 文泰均氏一萬圓寄附로寄宿舍까지 理想的으로 增築케되바 그야말로順風에 돗단배가티一路發展向上하는 同校는二萬七千餘坪이란 廣大한基地에 諸般施設을 完備하얏스니 今朝鮮第一의 充實한 中等機關이라함은 決코 거즛말이아니다 그러중에도 今年에 또다시工費 約四萬圓을投하야 籠球場庭球場 一般陸上競技場等을 따로히 新設햇스며 地理、歷史、圖書室의特別敎室도 新築中에 잇스니 그校運은 旭日昇天의 勢라고나할가?

開城唯一의 好壽敦女高

▲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同校는 一九〇四年(三十二年前)米國南監理敎會宣敎師『葛月』及『王來』兩氏가 創立한 開城最初 女子敎育機關으로 처음엔草家一間에서 女性黎明의 鐘을 울렷다한다 當時 學生은 겨우十二人― 光武十年校名을〃杜乙羅學堂〃이라칭햇다 그후 明治四十二年 米國〃호스돈〃地方會에서 校舍建築費를 相當히 寄附한바 該地方名을 即譯해서 好壽敦女塾이라 命名하고 中等科를 새로 設置케되자 大正七年四月敎育令에 依하야 女塾을 女子高等普通學校라 改稱해서 認可를 得하얏다 同時에技藝科는私立美理欽女子校로 分離햇다 昭和八年五月 約六萬圓工費로 花崗石三層校舍를 雄壯히新設코 在來舊校舍는 寄宿舍로 修理하야 學園으로써 아담히꾸며노코 方今 四百餘名의才媛을 키우고잇다。

好壽敦 (圓內는太靑來校長)



松都高普 (向右端은 現校長 金庚玉氏)

祝開城躍進號

開城府廳

開城興業株式會社 代表 朴永韶 電話四二一番

開城金融會 殖産銀行開城支店 漢城銀行開城支店 共濟無盡開城支店

滿蒙産業株式會社 電話(二)四二九七番

北本町通 コリアーミシン製作所 電話五六七番 振替京城二六三一一番

林家蔘業部本店 代表者 林漢璿 電話一四一番 振替京城九六〇〇番

肥料貿易 農具商 東亞産業社 電話三五九番

都橋食料品消費組合 電話四五五番

開豊郡廳 開豊郡農會 南面事務所 西面事務所 北面事務所 東面事務所 中面事務所 中西面事務所 上道面事務所 嶺北面事務所 嶺南面事務所 靑郊面事務所 進鳳面事務所 臨漢面事務所 興敎面事務所 大聖面事務所 光德面事務所 職員一同

開城警察署

圖書文具書籍 崧南書館 電話一六一番

開城釀造場 電話二二、五〇八番

開城郵便局

開城商工會議所

開明劵番

開城藥業組合

開城公立商業學校

開城少年刑務所

洋服界元老 松京屋洋服店

無線電話蓄音機材料 放電工務所 主 朴[illegible]

商都開城의 代表機關

蔘業株式會社出現

蔘業界의 革命的存在

資本金二百萬圓으로 白蔘統制

地方經濟에서 開城經濟로 開城蔘業界에 一大革命을 일으킨 開城蔘業株式會社는 昨年十一月 資本金 二百萬圓으로 創立을 보게되엿스니 朝鮮産業界를 爲하야 欣賀할바이며 또한이는 消費者의 福音이요 耕作者의 更生이다 一時는 會社創立에 잇서 開城經濟界에 重大한革命이라지 險惡한難關이 重疊하야 悲境에 陷入한때도 잇섯스나 이難關을 突破코 目的을貫徹하기까지 現社長 孔聖學氏의 圓滿하고 高潔한人格과 現專務 曹龍煥氏의 百折不屈의氣魄이 그리고 公平無私한處置로 一般蔘業耕作者가 絶大한共鳴支持하야 오늘날 高麗人蔘의 百年大計를 確乎히 建設한것이다 同會社의 趣旨는 一般人蔘耕作者의 擁護機關으로 産業統制의 新經營方策에 依하야 可及的生産費를 節約해서 價格低廉으로 一般消費者層에 提供하자는것이니 이것이야말로 生産消費兩者의 共存共榮의 策이라본다

이와가티 理想的으로 創立된機關이만큼 社勢는 破竹之勢로發展하야 窮況不振든 蔘業界에 生新한 活氣를띄며 豫想外로販賣成績의 好結果를보히고잇다 그러우리는 여기에 會社創立以前과 以後의生産高及 販賣高를 對比해 이事實을 證明키로하자

昨年度는 空前의 豐作으로 會社에서 製造한白蔘數量은 二十四萬四千五百四十六斤이엿든바 이것을 再昨年 個人白蔘製造量인 二十萬九千九百三十二斤에 比하면 實로三萬四千餘斤의 多量的增産을보엿다

이數字에 驚愕한開城一般社會에서는 例年消費量으로 비처보아 約四萬斤은 剩餘品으로 繰越될것이라는것이 推測이오 前途에對한 悲觀論이엿다 然이나 曹專務 山階支配人 兩氏의 確固한 信念下에 必死的努力으로 —그리고 營業主任 禹昌命氏의 敏活한手腕으로 벌서二十二萬斤이란 未曾有의 販賣高를 突破하야 방금不過二萬斤의 在庫品이남엇다하니 今秋新蔘期日內엔 어김없이야 充分히消化시킬 것이라본다 이것은實로 開城을爲하야 또는人蔘將來를爲하야 慶賀할바로 同會社의今後가 더욱 刮目期待된다

그런中 방금同會社는 內的으로는 製造部의 陣容을新設해가지고 科學的 製造法으로 高麗人蔘의 偉効를 좀더發揮하도록 一段品質向上에 苦心研究中이며 外的으로는 宣傳部를두워 從來의局限된朝鮮內의販路를 二十餘個의 外國으로 開拓하기에 注力하고잇는바 日本內地는勿論! 樺太、臺灣、關東州、滿洲國、中國、馬來半島、南洋群島、濠洲、布哇、北米、印度、歐洲等地에까지 大大的으로 取引綱을擴張中이라하니 오늘날『高麗人蔘』이 一躍! 國際的名産品으로 海外에 聲價를 宣揚할때는 正히이때가 아닌가한다 今春에는 宣傳의 第一步로 名古屋及別府兩博覽會에 數萬圓의 宣傳費를犧牲하야 現場에『人蔘館』까지特設하고、一般顧客에게 無料로人蔘茶、『서비쓰』와 人蔘菓子試食接待等으로 極力宣傳하야 多大한効果를 보엿다할도 이實例의하나라볼수잇다

(寫眞은 開城蔘業株式會社全景과 製造中의女工들)

開城蔘業株式會社全景 (圓內는社長孔聖學氏)

會社重役 人物紹介

孔聖學氏 (取締役社長) 開城社會에 第一人者인氏는 또한 人蔘界에도 功獻이만흔 先輩로그 일홈이놉다 君子의 德望과 仁厚한人格은 누구나 敬慕하는바인데 氏는일즉 『身體剛毛、義重泰山』의 大義를 세우고 教育界、産業界、또는一般社會를 爲하야 獻身的 活躍을계속하야 萬人이 拜服하게되엿슨바 다음 紹介하는 十餘個機關의 公私職은 事實이 그러타함을 雄辯으로 證明하는것이다 ▲開城蔘業株式會社社長 ▲開城釀造會社社長 ▲西鮮電氣會社及松高實業場重役 ▲豐德水利組合 ▲黃海水利組合 ▲開城蔘業組合 ▲開城釀造組合長 ▲杜門洞、崧陽書院院長 ▲各學校 後援會長 ▲大東斯文會總務

曹龍煥氏 (專務取締役) 氏는 豪膽直한人物로 그의 卓越한識見은 社會情勢의 趨移에 눈이 밝은 분이다 그때문에 일즉이 不振狀態에빠지는 開城蔘業界에 病根을 바로打診한氏는 救出할一路는오직『統制機關』을 組織함에잇다고 紹介하고 同會社를 組織하기까지 第一線에 나서서 活躍한 人物이다 그리하야 氏의 前職가튼 意志는 期於코 初志를 貫徹하고 말엇든것이다 氏의 過去歷史를보면 高麗靑年會會長으로 한때는 壇上에서 熱辯을吐하야 靑年의 指導者로 多年間 言論機關에 投身하야 社會啓蒙을 普及시킨일도잇다 現在는 蔘業界支柱로 活躍하는外에 貞和女子商校 理事長으로 努力하고잇스니 開城에 中堅名士의 一人者라 안할수업다 (寫眞은 曹龍煥氏)

山階貿隆氏 (取締役支配人) 氏는 일즉이 長濱農業學校를 마치고 東京盛歡大學에서 博物學을 專攻하야가지 곳 朝鮮總督府專賣局의 技師로서 奉職渡鮮以來 二十四年間 蔘業界를 爲해 犧牲的努力하든분인데 昨秋開城蔘業株式會社 創立과同時 取締役支配人으로 榮轉케되엿다 이가티 人蔘과因緣이깁흔氏는 蔘業界의先輩로 同會社에 업지못할重要人物이 되여잇다 過般公職으로는—學校評議員府會議員等을 歷任하엿다 (寫眞은 山階貿隆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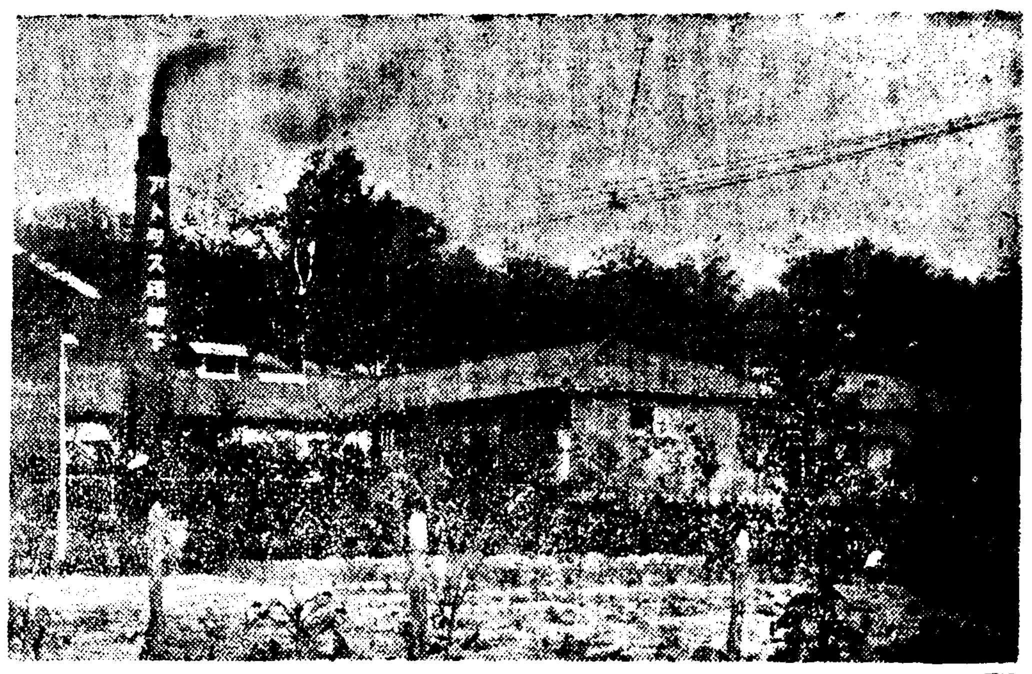
商都開城에 標本

金在鉉百貨店

今秋에는 新裝될偉觀

開城南大門通 中央商街에 //金在鉉百貨店//하면 三尺童子라도 알만큼 그存在는 뚜렷하다 大正十年度 開業當時에는 一個平凡한 綢緞布木商이든것이 十八週年을맞는 오늘에는 一大百貨店으로 雄飛하야 方今 三層洋屋의 威風堂堂한 店舖를 新築中이다

九月頃 同店舖가 竣工되면 斷然 商都開城에 霸王으로 君臨할것이라본다 比較的 景氣가閑散한 여름철에도 同百貨店만은 雲集하는 顧客이 끈일줄을몰라 繁昌 大繁昌을 일우고잇다 이것은 오로지 同店主金在鉉氏가 五十餘名이나되는 店員을 잘統制하야 顧客에게 親切한『써-비쓰』는 勿論! 信用本位로 良品을 廉賣하는때문이다 그런중 원체 性情이 豪膽實直하야 事業을 樂으로 삼는氏는 前記百貨店外工場企業도 勃興시켜 보겟다는 壯志를품고 現在鮮一工業社 開城毛絲編物工場 西山工業社 丸金洋家具工場等 四大工業機關을 直營中 이것도 全部大擴張 新築中인데 現在三百餘名職工이 여기에 生命線을걸고 잇다한다 合資나 株式會社가아닌 一個人의 運用機關에 如此히 多數한 大衆이 一家族가튼食口로生活을 維持하고 잇다함은 全鮮에類例가 드믈것인바 金氏는 果然! 大事業家인 同時! 社會大衆의 家長的慈父라 안할수업다 氏는 언제나 말하야日! 『나한사람만이 잘살기 위하야 이가티 애쓰는것이 아니다』라고……(寫眞은 同百貨店의 新築模型圖와 店主 金在鉉氏)



第一工業社全景 (金在鉉氏經營)

蔘業界의 老將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販路開拓의 先驅—

高麗人蔘이 아모리天惠的蔘藥이라 할지라도 權威잇는宣傳販賣機關이업시는 到底히 今日의聲價를 엇지못햇슬것이다 人蔘老舖合資會社 高麗蔘業社는 開城蔘業界의 唯一한開拓者로 人蔘大王이란 稱號를가진 故孫鳳祥翁의創設한 會社인데 現今은 孫洪駿氏가 先親의業을 繼承하야 經營하는중이다 創業以來二十餘年間 對外的으로는 人蔘販路擴張 對內的으로는 人蔘의品位向上을 爲하야 實로莫大한勞力을犧牲하얏다 따라서今日에는 海內海外서 高麗蔘業社에對한 信賴가 薪薪하야 開城人蔘生産高의最多數를 消化식히는 販賣機關이 되어잇다 開城은 高麗人蔘으로 名聲이놉다하면 人蔘은 高麗蔘業社로하야금 그聲價가 놉하젓다고 中國及南洋諸島와 米洲各地의 取引顧客들은 일커러온다 이와가티 人蔘界의 先驅인同會社는 最近府當局이 人蔘開城을 蔘都化하려함에 鑑하야 지난四月부터 會社의營業方針을 大大的으로擴張하고 特히 //漢藥部//와 //藥品部//를 增設하얏는바 //漢藥部//는 唐草藥材를 貿易販賣하야 漢方醫藥의進展을 圖謀하는 目的으로 特히『保血強壯劑』와『健胃消化劑』婦人病等에 特効잇는 高麗人蔘의 加工新製品으로 製造하야 人蔘의 特有한効力을 發揮하고잇다 如此히製藥方面에 여러가지로 研究努力을 加하다함은 高麗人蔘의原形消費時代로부터 理化學的原料供給時代로 質的轉換을 企圖한다는 證明이 되는바 今後開城이 『實業工業都市化함에는 그開拓機關』一그開拓者의 功勞는 못지말고 高麗蔘業社 社長 孫洪駿氏의게 表彰해야할것이라 본다 그런중氏의 精神은 春間에 我利我慾의 致富者流와는 달리서 有爲한 事業이라면 巨金의喜捨를 엑기지 안는분으로 名方面에 讚揚을듣고잇다 (寫眞은 同社屋과 社長 孫洪駿氏)

廣告로人蔘宣傳

通信販賣의元祖

崔益模氏功勞多大

오늘날『高麗人蔘이』數百萬圓에 達하는 數字를가지고 朝鮮産業의王座를 占하고잇스며 開城六萬府民이 生命線이되여잇다하야도 三十年前일을생각하면 販賣高가 겨우數千斤에 不過하야 微微하기짝이업섯다 따라서一般人蔘耕作者들은 專賣局에서 紅蔘原料로팔혀 賠償金이라는것만 수로알고 希望하엿지 白蔘에對한 宣傳方法이라든지 販路開拓이라든지는 全然等閑視하야섯다 이와가티 聲價가 업섯든當時『高麗人蔘』은 오늘가티 名聲이놉흔『高麗人蔘』이 아니엿스니 販路는 다만大邱藥令市를爲主로 數千斤의 小數量을消費햇슬뿐이다 그런중에도『紅蔘』이나『紅蔘』에 눌려 팔道理가업섯든것이다 이가티 보잘것업든 開城人蔘이 只今와서는 耕作界에선 白蔘으로 本미천을뽑고 小數의 紅蔘原料로 利益을보게되엿다는바 如此히 無價寶햇든白蔘의聲價를 世界蔘藥으로 高揚케한것은 崔益模氏의 努力이크다본다 氏는距今三十年前 一般이廣告術에對한 智識이 極히未開햇슬때 人蔘에對한 通信販賣를 처음으로始作하야보앗나 말하자면 이것이崔氏가 白蔘에對한 廣告宣傳法을 開拓한根源이라하겟다 以來氏는 不斷의 努力과 物質을投하야 海內海外에 白蔘宣傳熱에 孤軍奮鬪의 努力으로 開城『高麗人蔘』의 効驗에 對한 眞價를 發揮시켯다 이때에야 開城商人들은 畢竟가 蔘業通信販賣로 雨後의竹筍가티 層生輩出하얏는것이다 이처럼 蔘商이 激增함에 따라 白蔘의 發展은 前古未曾有의 絶頂에達하야 內外市場으로 巨大한輸出을 보게됨에 人蔘의 聲價는每斤 三十圓까지 昻騰한時代가잇섯스니 이것이 즉 蔘都開城의 一大黃金時代엿섯다 따라서 오늘날 開城會社는 얼마큼 福利를 누리게되엿슴과同時에 崔氏의 宣傳業의 偉大한 功勞를그 歷史的 前景으로보아 無視하랴 無視할수업는 것이라본다 이를 契機로 삼어 京城某新…… 開城社會에서는 昭和十年十二月에 氏의 別邸境內에 銅像을 建立한바 한때는 이銅像問題로 社會에 物議가 잇섯다 이것은 말하자면 氏가 오늘날 白蔘開拓者라해도 一段致富術、理財術에 注力하야 個人의 業蹟을 남긴것이지 社會의 公共事業을 爲하야 業蹟을남겻다곤 볼수업다는 말인데 이것은 決코 氏에 對한 激勵의 批判이라본다 그런중 氏는 一旦隱忍自重한 態度로 방금 私邸에서 閑日月을 보내며 社會動靜을보며 무엇이든지 有爲한 事業이라면 巨金의 喜捨를 不惜할것으로 壯志를 품고잇다하니 氏에對한 今後의 期待는 實로크다 (寫眞은 崔益模氏)

工業朝鮮의雄

松高實業場

堂堂世界市場에進出

松高實業場은 距今二十七年前 松都高等普通學校의 附屬工場으로 創設되엿든것을 一九二九年에 資本金 二十萬圓의 株式會社로 變革하얏다 以來 生産高는 年年倍加되여 今日에는 織物二十五萬疋、洋襪七萬打를 產出케되바 實로 그 年產額이卅萬圓을 突破하고 잇다한다 그런중에도 製品中半以上이 日本內地로 輸出되고 上海、南支各地及 滿洲國等 無遠弗屆에取引綱을 擴張하고잇스니 寂寞한 朝鮮工業界에 잇서서 더구나纖維工業에 잇서서 堂堂ー二販路를 世界各國에進出하고잇다함은 工業朝鮮의雄! 松高實業場이아니면 볼수업는 驚異的事實이다 그럼으로 오늘날 海外取引顧客들은 松高織物이면 品質堅牢로 또는染色優美不變으로 特長이잇다고 널니알려지고 잇다 그런중 最近同會社에서는『松高織』을 朝鮮內色衣獎勵運動에 適應코저 實費廉賣로 提供하는때로써 府內女學生의 校服이 全部가 『松高織』으로 就製되여 잇서서 『내살림은내것으로』하는 標語가 如實히 實現化한감이 잇다 그럼여기에 『松高織』及 『松高緞』의 特徵을 簡單히紹介해보자

▲染色=現代科學의粹를다한 最高級染料인 『단스렌』(攄純染料) 染色이여서 日光이나 洗濯에도 絶對變色치안는것!

▲織物=綿絲中에도 第一치는 …紡織二合絲로써 飛行機의 …

▲地質=藝術의가튼 耐久力이 잇고 綿織과가티 洗濯할수록 光澤이 빛나는것

▲紋樣=流行을 따라 配色과 紋樣이 斬新하고도 高尙한 調和美를보여 現代人의 趣味에 適切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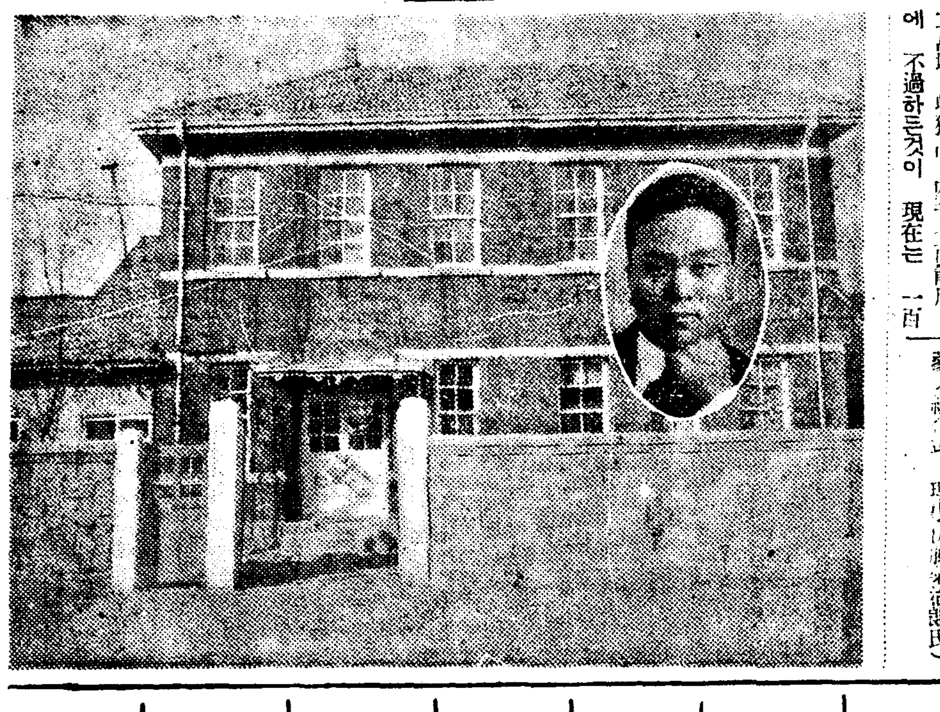
▲價格=品質에 比하야 低廉하것은 …

(寫眞은 松高實業場全景과 社長 …氏)

白蔘의 檢査機關

開城人蔘同業組合

白蔘으로 말하면 紅蔘과가티專賣品이 아니고 따라서取締令이업섯든 關係上一部奸商輩의 詐欺販賣術로한때는 一般需用者에게 信用을失墜하야 新業不振의 衰退狀態에 빠젓든바 昭和八年九月 開城人蔘同業組合을 創立해서 高麗人蔘의 品質統一을目的으로 白蔘及尾蔘에 嚴正公平한檢查를 施行하야 檢查한 合格品은 紙函속에 너케한후檢查證紙로 密封하야 一目瞭然토록『高麗人蔘』의眞正品임을 表明케해서 그聲價를維持케하고잇스며또는販賣에對해서도媒介斡旋하고잇다 同組合長은孫洪駿氏、理事는高漢承氏인바 원체係理잇는能辯家요寬大한包容性을가진高漢承氏는 支配統治 人物로果然 適任者라 보다 (寫眞은開城人蔘同業組合과理事 高漢承氏)



開城蔘業組合

人蔘耕作指導機關

病虫驅除栽培改善으로

四十餘萬坪을耕作中

開城六萬生靈의 死活의鍵 高麗人蔘이 한때(明治三十二年頃)는 赤腐病의 發生蔓延으로 耕作이 極히 衰退하야 一朝에絶滅狀態에 빠저섯다 이에 對策을 講究한 開城人蔘耕作者들은 病虫驅除 耕作奬勵를 目的으로한 組合機關의 必要를 切感하고 明治四十三年(二十七年前)…月 開城蔘業組合을 組織하고 故孫鳳祥氏를 組合長으로 薦擧하엿다 爾後 近三十年間을 人蔘發育에 對한改良! 病虫害驅除에 苦心研究해서 栽培改善을 企圖하고 한편으로 低利로 耕作資金을 年賦로 融通케해서 蔘業栽培를 獎勵하아왓섯다 그때문에 創立當時에 組合員百名이든것이 現在는 三百名—耕作坪數=四十二萬坪 收穫高=四千七百餘斤—에 不過하든것이 現在는 一百六十萬坪의 耕作坪數와 九十一萬斤의 生産高를 …

開城社會에서는 … 千秋高代에 남기기위하야 今秋 //人蔘館//아메 銅像을 建立케되엿다(彫刻家金復鎭氏가 製作中)現—組合長은 前記 開城蔘業株式會社社長인 孔聖學氏가 兼任—理事는伊藤菊治郞氏! 氏는內鮮人差別觀念이업시 近十年間이나 現役에忠實하야 組合員間에 信望이두텁다한다 (寫眞은開城蔘業組合과 理事伊藤菊治郞氏)

祝開城躍進號

人蔘貿易 高麗白蔘業社 主 韓宗錫 電話四六三番

高麗人蔘社 主 朴世昌

高麗人蔘元祖社 閔蒼植 電話五五三番

松都殖産株式會社 社長 黃中顯 支配人 金基晃 電話(五二七)(五三三)番

西本町通 東亞製油所 主 全興成

朝鮮産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林鎭洙 電話二二二五四番

㈡開城運送株式會社 社長 朴奎二 支配人 印元鉉 電話三四二番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開城支店 支店長 金正浩 電話五〇六番

松都醫院

十字醫院

中央醫院

大同醫院

同仁醫院

高麗醫院

韓內科醫院

天主教堂 神父 申聖雨

北本町 東星洋靴店 主 林奎喆

第一洋靴店 代表 姜龍雲

綢緞布木 三星商會 電話四一八番

開城商工會頭 朴鳳鎭

朴尙裕

府會議員 李根泰

迎濱樓 電話一四八番

會昇館 電話五〇七番

開城電氣工業所 電話五五六番 主 韓志永

東洋寫眞館

圖書文具洋品百貨 高麗商會 電話三四五番

書籍專門 文具洋品 松都園 日誠堂

松月館 電話四四番

學藝

(七)(八)(月)(創)(作)(評)—(五) 批評의榮養素로서의作品

安懷南

나는 이글 初回에잇서서 무척 大言壯語를 한것가트데 지금와서는 完全히 幻滅을 느끼게되엿습니다。批評이란 作家와作品을

…材…

對로하야 批評家自身을 이야기하는것이니 뭐니 헤지만 이글의 結果로 보아서는 充分히 그러케되지못한것갓습니다。批評家의 世界를 맨들어보기는 커녕 想像도 못햇든 混亂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일허버린感이잇습니다。아마 批評이란 元來 自己의世界를 發見하는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自己의世界를 喪失하는것이기도 한모양입니다。나를 第一 焦燥하게 맨드는것은 첫재 無數한 話題의分裂과 거기에 따러지는 全體的組織에의 主題의 不成立이엿습니다。이것을 뒤푸리하여보면 어느때는 그것이 나의 不治함으로도 들리여지고 어느때는 對像에對한 不滿으로도 나타납니다。마는 아프로의 커다란 宿題로 삼어보겟습니다。둘째는 作品속에 批評의榮養素가 될만한것이 너무 貧弱한것이엿습니다。오늘날과가튼 作品의 水準現狀으로는 到底히 批評은 살찔수업다고생각됩니다

…作…

品의發展이 批評의 發展의 前提입니다 아무리 四方에서非難하여도 當分間은 빼빼마른批評이 繼續出現할수박게는 업스리라 밋습니다。作家들은 두말말고 어여 푸등푸등한 알맹이 되옵소서。그러면 그대들을 잘 料理하고 批評의血色을 조케할 名手가 생겨질것입니다。

金東里氏의『率居』는 于先作者의個性을 가장明瞭하게 보여주고잇는 作品입니다。따라서作品의 方向이나 雰圍氣나 意慾이 모두 獨特한世界에 屬하는 題材의것이엿습니다。그러나내가 이作者에게 好感을 갓게되는것은 입대까지 보아온 이분의멧개作品에 滿足하는것보다 훨신 크게 앞길을 囑望하는 까닭입니다。『率居』는 공연히 수다스러웟습니다。于先整頓이 되여잇지못햇습니다。그러나 이것을 가위로 깍고 짜르면 무슨 또 별다른

…園…

藝花草나 가리 아름답게 보여질 언덕거리를 갓고잇는것이냐하면 그러것도 아니엿습니다。率居의畫像은 壯嚴하고神秘할수도잇는 것이겟지마는 그것을 이야기한 이作品은 조곰도 우리에게 그러케 보여지지 안습니다。한綺麗한 題材가 深刻하게 過度되기 前에 作者가 너무性急하게스리 그氣分에 반하여버리고 만것 갓습니다。

그外『女性』과『朝鮮文學』兩誌에 發表된作品이 數篇잇스나 割愛하기로 합니다。前者는 作品들의 되음이 興味本位로 讀者들을 考慮하야 별다른態度에서 된것임으로 다른本格的作品들과 꼭同一한 基準으로서 批評한다는것은 可笑로운 일일것가트며 後者는 寬情이지 끗까지 讀了할수업는 程度의것들이엿습니다。

여기까지 붓을 달리고 나니 정말 뒤를 몰아다보고 시픈생각이업습니다。作品의 長點만을 이야기해도 조코 그 短所만을 說明해도 관게업스며 무슨

…觀…

尺度를 가저 作品이 거기에 符合하나 背反하는나 그것만을 가려보아도 批評하는 世界를 이루울것이라고하야 나는 作家의 作品에서의 리알리즘을 求是 批評의 우에서 번떠보라 하엿습니다。마는 그것좀은 아까말지럼 모든것이 薪身後에으로 나타나진것만 갓습니다。外國에서든은 오히려 作品의 技術批評을 希望하는것가튼 이야기지마는 나는 이러한 技巧問題에 給終하고 맘게되는것처럼 不快한것이 업습니다。아마 나의이번 評文의 腐敗속에서도 그것이 가장 유난하게 눈에 띠여지는 것입게며 또한 욕입수업는 兩價한곳이라 여깁니다。다시한번 그냥일을 께을고 다음 機會에서나 慾心을 채위보리라 마음먹습니다。(끗)

新刊紹介

▲朝鮮行政 八月號 發行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七丁目一 帝國地方行政學會 振替東京一三番 定價五十錢 送料二錢五厘

▲예수 八月號 發行所平壤府下水口里九○ 예수교회中央宣道院 振替京城一一三六五番 定價十二錢

▲新興佛敎新聞 第二○五號(月刊)發行所 東京市豐島區雜司ケ谷町一의六○ 佛旗社 振替東京五三七○一番 定價一部五錢

○高麗公論 七月號 發行所 開城府東本町 高麗公論社 振替京城五○二九番 定價十錢

○ゴールド 七月號 發行所大阪市北區濱上江町五ノ六○ ゴールト社 定價三十錢

▲基督敎報 第一一九號(週刊)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一五九○番 定價一部五錢

▲週刊太陽 第十號 發行所東京市赤坂區表町三의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鍊金術 참다운第八藝術

五星子

最近에 라디오는 文壇人의 손으로된 小說作品을 가끔 朗讀하여 放送한다。勿論 이것은 조흔試驗이요 누구에게나 반가운푸로이다。그러나뿐 只近代의 印刷文學을 그냥 그活字대로 읽어버리는대만 끄처서는 안될것이다。보다 만히 聽覺的要素로 依存하는 것을 아무리우리의 귀에다 電波를 굴러너흔들 所期의 効果를 完全히 엇는다고 할수잇슬까부냐。放送함에잇서서 어느程度의 合理化를 圖謀한다 치드래도 그것은 恰似히 次藝를 主題로한 어색한映畫와가티 물에뜬 기름일것이다。滿足한 第八藝術을 創作하기 爲하여서는 씨나리오가 誕生되고 또 그것이 必然的으로 誕生되지 안흐면 안될것과 가티 今日의 라디오에 잇서서도 그러치 안흘가。即라디오·드라마의 境遇와 가티 文學의 旣成作品을 어떠케 라디오는 放送할가가 아니라 放送하기 爲하야 어떠한形式의 文學을 새로히 創造할가가 더욱 重大한 問題일것이다。그리하야서만 마이크로폰과 안테나와 受信機와 우리의 聽覺이 좀더 有機的으로 聯結되고 라디오는 그때야 비로소 제自體의 藝術을生産하게 이르를것이다。

漢拏山登攀記

三神人의 說話 —耽羅始祖三姓祠를차저— ⑦

李殷相

그리든 濟州島에 첫발을노호니 二十六日午前 時。旅舍로들어가 行裝을풀고 梳洗한뒤에 깨끗한精神으로번저 이섬의始祖廟인 三姓祠를 찾기로한다。

우리一行은 南門街道를 한참지나 左右에 守護石像이서잇는곳을 헤치고 들어가니、鬱蒼한 松林속에 鳥聲이 자저귀고 얼른보아도 기릅가리 떠도는 淸淨한 佳氣가 엄리 은 應峯의마음을 대번에 太古意속으로 끌어드린다。

石垣正面에 乾始門이라 揭한扁額은 誰氏의筆인지 未詳하나 法度업는 글씨는 아니라 생각하면서 門안으로 들어서니 門의西側에는 三姓祠에 功績갓는 牧使李衡具、李衡祖、梁世福等諸公의 記念碑가서잇스며 여기저기에 典祠廳、崇報堂、守僕廳等이 整然하게 안젓다。

三姓祠正殿으로 들어가 三那神位아페 參拜를 드렷다。神座는 모두 東向으로 毛羅始祖良乙那、小羅始祖高乙那、毛羅始祖夫乙那라合位牌를順次로 主壁에 奉安하고 殿의北側에 耽羅星主、耽羅王子、耽羅徒內 三高氏의 位牌를 曲設配享하엿다。

이三神人의 說話는 毋論耽羅開國說話이어니와 古記에依하야 그槪略을 紹介하리라。

본시 이땅에 사람이라고업든바 三神人이 땅으로부터소사나니 지금 毛興穴이란곳이 그곳이다。長을일러 良乙那、次를일러 高乙那、셋재를일러 夫乙那라하엿는데 三人이 荒僻에遊獵하고 皮衣肉食으로사러가더니 하로는 紫泥로封한 木函하나이 東海濱에떠대이기로 건지어여러보니 그안에 또 石函이잇고 紅帶紫衣의使者가 따라와섯다。그石函을 여러보니 靑衣處女세사람과 개、소、망아지며 五穀의種子가 드러잇섯다。

使者가하는말이

『나는본시 碧浪國使臣이온데(或作日本國使)우리임금이 세분따님을 나흐섯더니 西海中岳에 神子세분이 나시어 將次 나라를여시려하나 配匹이 업는모양이라하시며 臣에게命하시기로 三女를모시고 왓사오니 마땅히짝을삼으시사 大業을이루소서』

하고는 使者ㅣ문득 구름을타고 가버리엇다。

三人이 나이를따라 그세處女에게 장가들고 泉甘土肥한곳을골라 활을쏘아 자리를 卜하니良乙那의 所居를 第一徒居(或作都)라하고 高乙那의所居를第二徒라하고 夫乙那의所居를第三徒라하엿다 그리하야 처음으로 五穀을심으고 즘생을치니 나날이 그富함이 늘어갓다는것이다(耽羅誌)

이것이 三神人의 說話이자 곳耽羅開闢說話이다。

從來로 朝鮮姓氏에 잇서서 良(梁)、高、夫三氏(順次는文獻에依하야 批評을말지아니함)의 始祖가 곳二분들이라함은 이미 常識으로 되어잇거니와三神人의 名義에 關하야 良、高夫는 다姓이오 乙那는 이름

인줄로 알고잇슴도 事實이다 그러나 나의所見으로는 太古時에 姓이잇슬理업고 良乙那가 合하야 그의이름이며高乙那、夫乙那도 다各各 그의 이름인줄로안다。그것은 漢字로된이름이아니라 朝鮮語로된이름일것이니 대개 吏讀에잇서서『那』는『奈』와混用되는類例가만흠을보아『나』『내』『네』等으로 發音하게 될것이며『나、내、네』는우리말의『아무개네』라고부르는 그『네』이니 곳人格을 表示하는『그이』『저분』의『이』『분』과 同一한 性質의것이라할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良乙那의音을『올나』라하며 高乙那의音을『골나』라하며 夫乙那의 音을『볼나』라고 읽는것이 어떨까한다。

여기이『올』과『골』『볼』이란것은 朝鮮古文化史上에잇서서 人名、地名、敎名、其他諸事에 許多하게도 通用되어잇는것으로 모두가 神聖、光明、統領의 義를 가지고잇슴은 다시 煩累한考證을 要求할것이업다。

다시말하면 그들 三神人은 이곳의 原始住民들을 治理하든 君長이엇스므로 모두가그들을 神人으로 브르매 한분은『올님』이라하고 한분은『골님』이라하고 또한분은『볼님』이라한것일줄로 생각한다。

이것을 좀더詳解한다면 說話原文中에 第一徒、第二徒、第三徒란것이 잇거니와 各其居所를『올』『골』『볼』이라이름하고 그것 그區域을 마타개신분이란 뜻으로『올』區域에게신분은『올님』(良乙那)라하고『골』區域에 개신분은『골님』(高乙那)라하고『볼』區域에게신분은『볼님』(夫乙那)라한것일듯하다。

毋論 이와가튼 愚論은 自己一人의 主觀으로서 正確不易의 學說이 될것은 업거니와 如何間 이런생각을하며 나는우리一行과함께 神殿을 拜退하엿다。

(寫眞은 三姓祠)

東京通信(五) ◇箱根週遊◇

崔載瑞

第十信 오늘아침에 일직이 ××社編輯室에 가보앗습니다 編輯室이래야 요새는 繼續印刷中이니까 印刷所外來校正室로 移動하야 十餘人 編輯部員이 이곳에서 八月號의 最後準備를 하고잇습니다

오늘밤이면 最後의校了原稿가 印刷室로 넘어갈 이때에 北支事件에關한 記事와 論文을 넣느라고 編輯室은 자못 戰場과가튼 奔雜을 이르키고잇습니다。印刷所自動車를 대기하야가지고 執筆者의손에서 原稿가 열장 스무장식 떠러지는대로 날려오는 記者 그原稿를받는그자리에서 割付하는 編輯主任 그곳에 조차 廣告를 너흐려고 餘白을 算出하는 廣告部記者 아까넘겨보내인原稿가 三十分만에 校正刷가되여 오면 그것을 朗讀하야 校正하는 五六人의記者 三四日後이면 街頭에걸리여 通行人의눈을 소스라트릴 포스타의原稿를 考案하는사람 이리하야 이곳서는 자막대기와 赤筆과 가위로서 原稿를베기와 싸우고잇습니다。

繼續本社와臨時編輯室새에는 號外가돌때마다 電話로連絡하과 編輯室과印刷工場새엔 제비가티敏捷한 印刷所事務員이 原稿와校正刷를 交替로날러서 그새에 單一分도 遲滯가업습니다。이리하야 最後로 月次校了가 工場으로넘어가는 것을보고 下宿에도라왓슬때엔午前두시가 훨신넘엇습니다。

×

『모랄은 政治生活이라』고定義한 스펜다ㅣ의말을 나는여시 至言이라고 생각합니다。얼른 이雜誌編輯室만 엿보아도 알일입니다。밧게서드러온사람이 얼른보다면 그들의자리자리는 난봉꾼갓고 하는소리가 모두 虛荒放蕩하야 퍽으나 無責任한것 가트나 그들은 역시빼크·보ㅣㄴ(脊骨)을가지고 잇습니다。그것은 即 自己에의 一擧手一擧足이 民衆與論의 一要素가된다는 自覺에서 오는것일것입니다。그들은 高談放言中에도 事務는 事務대로處理하야나가고 그事務는結實하야 드디어 民衆의政治生活에 적으나크나 實影響을줍니다。그들은 빼지네스와 스포ㅣ츠의區別을 잘理解하고 들다利用할줄을압니다。

政治生活을가진人種과 가지지못한人種과의差異는 여기서 생겨나는것이아닐까 생각합니다。實際로政治生活을가지지못하얏스니 큰입에나적은입에나 政治的關心을를주저넘지만 實際에잇서선 그러듯 떠드리던 關心이 아무런 政治的實効도 내지못하는矛盾ㅣ여기서 빼지네스와스포ㅣ츠의混同이생겨나고 大言壯語가생겨나고 無氣力이생겨나고 떼까단스가생겨납니다。大言壯語와 떼까단스는 兩極端인것가트나 政治生活을 가지지못한 人種에잇서선 同體異形일것입니다。西洋어떤學者의말과가티 부르조아르것보다도 올스터든것과 恰似한것은 업습니다。大言壯語는 그속이 올스터든 譴掃일것입니다。

事務에 誠實한것은 勿論조흔일입니다。그러나 그誠實이 스포ㅣ츠性을 몰라서 그러다면 슬퍼할일입니다。웨그러나하면 그것은 眞正한 意味에잇서서의 誠實이 아니라 實로 無氣力이기때문입니다。우슴을 무르는 事務와 事務를 이저바린 우슴—이것은 모두다 政治生活을 가지지못한 人種의 悲劇일것입니다。(끗)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 伴奏料一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交附함(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申請金을 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illegible] 賞金을 授與함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 =슈벨트=(男聲) / AVE MARIA (아베·마리아) =슈벨트=(女聲)

【피아노】 IMPROMPTU(即興曲) NO.4 (作品九○)=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協奏曲) NO.? (B♭ LA MAJOR)第一樂章=로ㅣ데

【審査員】 金永煥·洪蘭坡 朴慶浩·玄濟明 桂貞植·金元福 鄭勳謨·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隨·筆·· 盛夏三題(上)

鄭槿陽

撒水車

撒水車란 거리에 물을 뿌리고다니는 수레를이름이다 적어도 서울서보는 撒水車에는 두種類가잇다。하나는 人力으로끌고 다니는것이요、또하나는 機械의힘으로 물을 뿌리며 다니는것이다。

거리에 물을뿌리는目的은 거리의 몬지를 덜나게함에 잇슨즉 盛夏에 限하야 이런行事가 잇는것만은 아니지만은 가을이나 봄과는달러 여름철에는 한風數가잇는것이다。여름이라면우리들은 물을 그리워하는 까닭인지도 모르겟다。그리고 撒水車란 都會에서만 물수잇는것이요 鄕村에잇서서는 바아지에물을 마당에 뿌렷스면 그만일것이요 항차 鄕村에는 撒水車가물을뿌리고 도라다닌나치드래도우리들은 이것을 한여름의 難見로서 꺼집어낼만한 아무런 價値도 發見할수 업슬것이다。저 옥어진 樹陰이잇고 버러진 그늘이잇고 게다가 그自身이涼氣를 담북이 실은 바람이잇는데야 구태여 이런것에 안타까히 여름의 一面의逃避를 求할 必要는 업슬게다。도대체 여름이 더다고해서 納凉이니 무엇이니하고 붓대를 간들거리는것은 都會에사는 얼골이 蒼白한 불상한 人間들의 더위에 못이겨하는 발악에 지나지못한다。

제아무리 都會人間들이 붓대를 놀리며 종이를 업새가며 여러소리를 적어노하대자 시골나무늘에 멍석을펴고 낫잠을 한잠자고나느니만 갓지못할게다 그러나 이런 발악도 어쩌는수업다 안하는이보다는 나을께니까。

내가쓰는 이글도 이런발악에 지나지안는다 이야기가 옆길로 쓸리기 시작하엿다 도로 바른길로들자。

먼저말한 두가지種類의 撒水車中에서 사람이 끌고다니는것은 더위를 북노두어줄뿐 내가 생각하는 價値와는 全然相反된다。물을 하나가득실고 무거운 구루마를끌고 구슬땀을 흘리는 그일군을 눈으로 보면더말할것도업거니와 생각만하야도진땀이 바짝 날지경이다。더더구나그구루마를 끌고 언덕을 올라갈때에 情景은 可憐하기 짝이업다 매암을 드듯이 구비구비올러가는 그姿態는 여름철에는 가장 보기실흔것의 하나이겟다 이와는 反對로 機械의힘으로 自動車위에 물탕크를싯고 무거운엔진소리를내며 街路에 물을뿌리고 천천히 前進하는것은 시원한展望이 아닐수업다。하로藩終日로록 秋陽에 나려쪼여 숨차 허덕이는 街路의 몬지를 씨스며 지나가는것을 보기만하여도 물을치 우리몸에 한바아지의 물을 끼언슨듯한 느낌을준다。撒水車는 나제도다니고 밤에 도라다닌다。그中에도 밤에다니는便이 멋배나 더칠신 涼氣를 도울는다。

내가 이撒水車의·그럴듯한맛을 發見한것을 얼마전부터 臨時로定하고잇는 나의宿所의 地理的關係이다。

이곳은 바로電車길에피다。電車도 다、끈히진 새로 한시가지난 이거리는 때때로 요란한 고동들 울며 來客을실고달리는自動車소리와 더위에 잠을 이루우지못해 애쓰는 불상한市民들의 새여나오는 談話소리를 뻬여노흐면 갑작이 조용해진다。

그거리를 묵직한撒水車는 물을는소리와가티 거러온다。二層에서 나려다보면 街路燈에 비춰여지는 여프로퍼진 물결레는 아롱진 五色빗까지띄이며 街路의 몬지를 쓰서내린다。

나는 오늘밤도 바야흐로 지나가는 撒水車를 나려다보며 떠나간 그女人을 생각한다。그가 나를 처음 차젓든 그날 두리는 나란히 서 窓밧그로 지나가는 撒水車를 나려다보앗다。두리는 서로 무엇을 생각하엿슴인지 默默히 나려다볼뿐이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안흘수 업섯다。마즈막날 그가 나를 차젓슬때는 구진비가 나리는 밤이엿다。비나리는 날에는 撒水車는 몸을쉬일수박게업섯다 우리는 窓밧그로 내리는 비빨을바라볼수박게업섯다 지나가는、撒水車를바라보며 지금도나는、撒水車조차 지나가지안튼 그날을 생각한다。

歐米여름趣味 (3)

儉素를爲主하는 佛蘭西의銷夏法 奢侈와호강은꿈박게일

在巴里 鄭圭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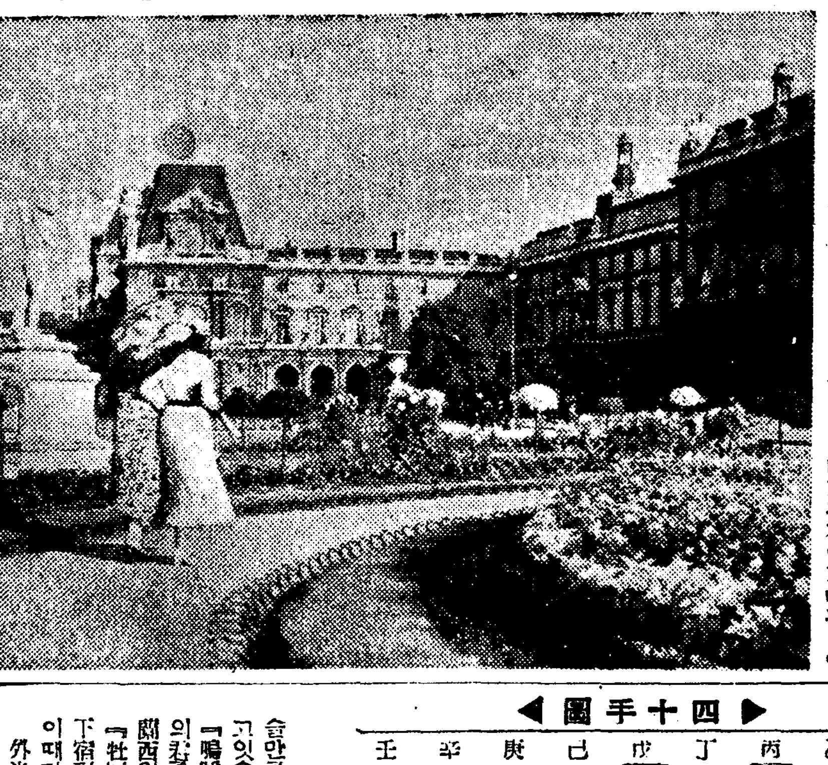
佛蘭西에 아무리오래잇섯다하더라도 모르는곳이 업시다알수업다 꿈의歡樂境으로 有名한 니ㅣ스、카ㅣ뉴、모나코或은 도비ㅣ르바아릿쓰等의 豪華版은 佛蘭西人 보다도 東洋으로부터 佛蘭西를 차저오는旅行者或은映畫莊의東洋靑年紳士 淑女等이 차라리 더잘 알고잇슬 것이다 深體의天使가 地上에 亂舞하는 外國避暑地의 映畫라던지 佛蘭西의 모모든곳 저편에서 반하야 따러오는 美女의洪水를만나서 그만진새울하얏다는 東洋居士의流言은 人間이살고잇는 이下界의 이야기는 아니다。

朝鮮과가티 가난한곳에서도 겨울이면 依例히『스키ㅣ』여름이면『避暑』로 大擧出演하는것은 佛蘭西와가튼곳에서 꿈박가티 일인것이다

모든곳이 한꺼번에된다。人間도 그와함께 숨을새롭게쉰다 巴里의表徵이라고 할수잇는마로니에가、아카시아、세ㅣ느와함께이피핀다 五月의樂聲降祭에는 벌서여름이다 그것이九月에는 겨울外套를입고 떨지안코면안된다 그러나 겨울의晴明한날、忽然히여름하날을볼수도잇스며 여름에 쌀쌀한겨울볏살이 卒然히 차저들기로한다 바래잇는 보리가한치쫌자라고 毒이 한창거머지며 물이더워저서 봄은 한발자욱 一步천천히 차저들고잇는 鄕愁的인 朝鮮의 季節感은업다。

다만 이러케 單調한風物속에서 굉장한것을 차즈면 女子들이 몸시이빼지는것이다。朝鮮에서라도 하옷을벗고 겨웃옷입을때되면 처녀들의얼골이 이빼지는것이지마는 이

『世界에서 第一호사는 佛蘭西사람』도 眞相은 第一儉素한國民이다。여름이될때마다 번번이銀幕의 홍내를 내고잇스면 아무리 돈버리잘하는 이나라 사람이라도 지향해갈수업다。다만 男便이나 愛人이 避暑에 다리고가지안흔다고 짜증을내며 울능이를 문턱에걸치고 렵렵한가슴을 여러재처 젓동미트로부터 腋毛近傍에 淸風을차바넛든 簡易한銷夏法은 이行하지本來佛蘭西의여름은더웁지안타。地圖를펴서緯度를살펴보더라도곳알것이나 佛蘭西의夏休에 都會人이 시골에간다는것은 全혀 다른理由로가지고 호사를爲하야가는것은 아니다 朝鮮과가티 春夏秋冬이 뚜렷하게差가잇서서 볏살도잘쪼이고 비도잘오신다 바람도불고 가물기도잘하야 自然이 서로 당을데가만타 이나라의一年의半은 겨울이다。일곱時에날이 밝으면 네時에는 벌서어두어진다 일곱時에저무른밤은 네時에는 벌서아침이다 四月初旬의復活祭頃부터 봄이왓고나 하고생각하면 징징의스토ㅣ브의불이꺼진다 실롱송아、앵도



女子가ㅣ 朝鮮式으로 말하면 파리잔느가 六個月間의黑고렵렵한 毛皮外套를벗고 胸線、腰線、脚線、肉體線을들어낸것은 朝鮮의 洋裝女史가百倍나大膽쏴허도 따라갈수업슬만큼 조흔 스타일을보여주고잇슬때『嗚呼、佛蘭西!』라할 東洋의君子는 歎息하는것이다『佛蘭西의여름은 巴里의 가제르『杜鵑』의다리에서 始作된다』下宿집 女子에게 흘리는것도 이때가第一만다。』

外光이 야튼 佛蘭西에서는 여름光線은 貴重하다。特히거므충충한 建物미레 놈이여서 沼底의藻草와가티 까라안저서 肺病의 根源이된다는 不健康한 巴里에서는 여름에 시골에라도 가지안는限 身體의健康은 말이못되는것이다。

(사진은 巴里의여름)

라디오

六日(金曜)

◇午後六時三○分 童話『입자업는책상』 東京放送童話研究會 盧良根
◇同六時三○分 (東)近世日本英傑(第一放送)(二) 伊達正宗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옹넹이낙시질』 尹愼榮
◇同八時 時局講座 白寬洙
◇同八時三○ 빠이올린피아노소나타第五番(스프링소나타)…베ㅣ토ㅣ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몰토、에스프레시보 第三樂章 스케르쏘 第四樂章 론도 洪志裕 피아노伴奏 金元福
◇同九時 古談 魂殺山海關 申淸居
◇九時三○(東)時報

第一放送
◇午後六時 (德)天然記念物
◇同六時三○分 (東)日本英傑
◇同七時三○分 (東)軍歌
◇同八時三○分 (大)水十夜
浪曲(大)歌謠物語
◇同九時 (東)時事解說

七日(土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算術(三) 安奭奎
◇同○時○五分 (東)아코ㅣ듸온合奏 一、行進曲『勝利의父』…간느作曲 二、西班牙舞女…카아라作曲 三、戰士行入歌…프리크作曲 四、圓舞曲『도나우江의小波』…이바노비치作曲 五、行進曲『軍艦』瀨戶口藤吉作曲 六、軍歌集…廣野泰光編曲 북보、아코듸온、밴드 指揮 大塚潤一郎
◇同六時三○分 이야기『白衣天使나이팅게일』 高一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禍福과修養(二) 李明世
◇同八時 週間時事 金麟伊
◇同八時三○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나、唱劇調 瀟湘八景 丈夫伋 沈相健 杖鼓 丁元燮
◇同九時 라디오드라마『故鄕을이저바린女子』三景 라디오劇同好會 作及演出 金健 配役 英明 金昌基 順女(그의妻) 池翠順 瓊姬(英明의前妻) 池福順 洞里老人 金葉 解說 太公望 効果 李康

第一放送
◇午後一時五○分 (東)野球
◇同六時 (同)天然記念物
◇同六時三○分 (城)兒童스케취
◇同七時三○分 (城)講演
◇同八時 (東)敎育會話
◇同八時三○分 (哈)水十夜
◇同八時四○分 (東)浪曲
◇同八時五五分 (東)講談

八日【日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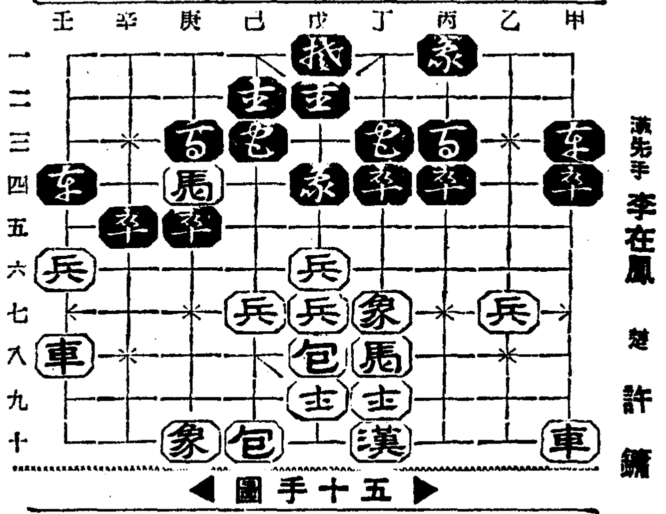
◇午後○時五○分 唱劇調 一、短歌天下太平 二、唱劇調與天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六時三○分 童謠와唱歌 一、齊唱져의별 二、齊唱추의아해 三、齊唱시간 四、獨唱천당가신어머니(洪貞順) 五、齊唱맛조흔참외 六、齊唱시내물(李如珠) 七、齊唱 능금나무 八、齊唱비방울 九、齊唱반짝반짝작은별 十、齊唱상앙이핀장미 十一、齊唱아름다운세상 貞洞幼年主日學校 指揮 鄭上欽 伴奏 申在德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崔南善
◇同八時 脚本朗讀『이러스는집안』黑暮 黃澈
◇同八時一五分 一、小春香歌 二、사철가 三、달거리 鄭環善 金泰運
◇同八時五○分 (平) 배뱅이굿
◇同一○時 音律『鐵山會相』 玄琴 李彦積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載弼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一時 滿洲新歌曲
◇同一時二○分 (東)謠曲午後
◇同六時五○分 (大)夏休雜六
◇同七時三○分 (東)歌謠
◇同七時四○分 (東)特輯演藝
◇同八時一○分 (東)物語
◇同八時三○分 (東)水十外
◇同八時五五分 (東)講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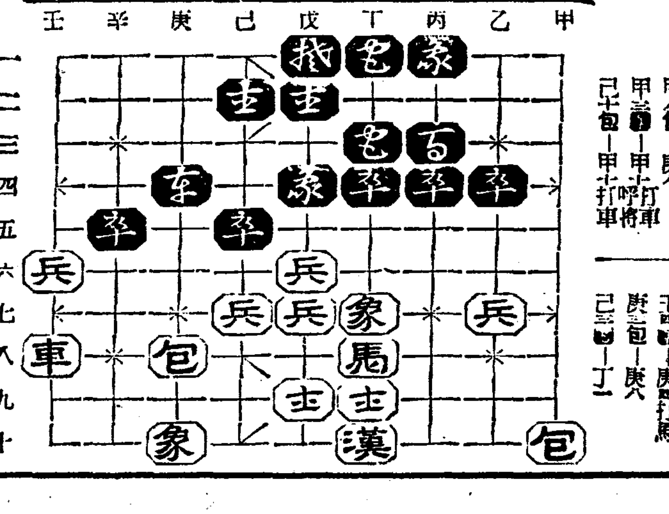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五)

漢先手 李在鳳 楚 許鏞

◀第十四手圖



◀第十五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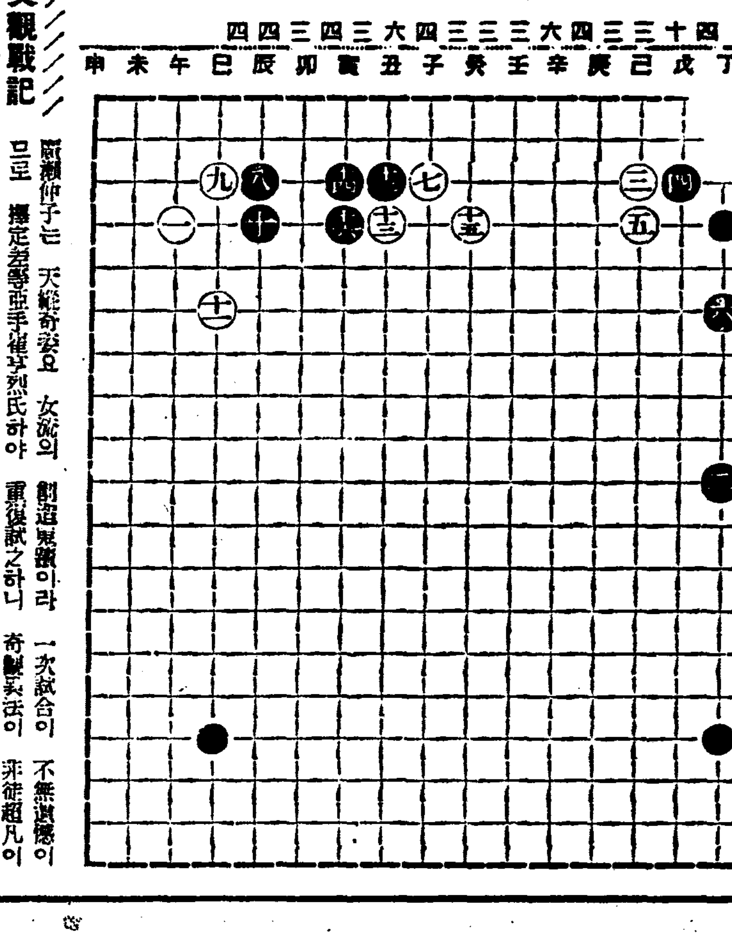
戊八包—甲八
甲四●—乙四
甲八包—庚八
甲三●—甲十打車呼將
己十包—甲十打車

庚●—己五
庚八包—庚三打馬
壬四●—庚四打馬
庚三包—庚八
己三●—丁一

本社主催 圍棋對局譜(1)

白 廣瀨仲子
黑 三段 崔亭烈

手	位置
○一	午의四
●二	丁의十
○三	己의三
●四	戊의三
○五	己의四
●六	丁의六
○七	子의三
●八	辰의三
○九	巳의三
●十	辰의四
○十一	巳의六
●十二	丑의三
○十三	丑의四
●十四	寅의三
○十五	癸의四
●十六	寅의四



蔡瑾文觀戰記

廣瀨仲子는 天稟奇姿요 女流의 創造鬼氣이라 一次試合이 不無遺憾이므로 擇定差等而手崔亭烈氏하야 重復試之하니 奇觀異法이 非徒超凡이라 頗有趣味故로愛棋僉座에 一覽을 供하노라 白午四己의三은 接制하는 初付例則이요 白子의三은 無限意思를 包括함이낫 黑丁의十丁의六 辰의三은 上手交涉의 得來處가 瞭然하다

中部版

本報驪州支局後援 全鮮蹴球大會 來十四、五兩日間

【驪州】경기도려주에서는 오는 십사일을기하야 려주체육회(驪州靑年會)주최와 본보지국의 후원으로 제이회전조선축구대회를 려주신륵사운동장(驪州神勒寺運動場)에서 개최하리라는바 일반각지 외선수제씨는 다수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普校의中途退學激增 原因은授業料未納

水害地江原道의生活困難反映

昨年度에만二千七百餘名

【春川】현재 강원도내에는 학령아동이십만이천명중 사만칠천명이겨우취학을하고잇서 취학률은미할사분에 불과한형편이다 이것은물론 교육기관이부족하여 그러타고도 말할수잇슬것이다 그리하야 당국으로서는 초등교육기관(初等教育機關)의 십개년확충계획을수립하고 불원한장래에실시하게될 의무교육(義務敎育)실시의 기초공작에 급급하고잇다하나 현재교육기관에 수용된아동이 중도에서 퇴학을 하지안케면 안될역경에서 사회를저주하며 기구한자기의운명을 저주하는참상이 연년이증가되여 소화십일년도에는 수업료(授業料)미납으로인한 퇴학생이 오백사십구명 기타퇴학생이 이천이백팔명 합계이천칠백오십칠명이라는 다대한수자에 달하엿는데소화십년도에 비하면 수업료미납으로 의한 퇴학이 사백칠십일명 그타가 일천팔백이십칠명이 증가되엿스니 이것은 과연 일반의 교육열이 감퇴되엿다는것보다도 일반의 생활이 극도로퇴폐되여 간다는것을 여지업시폭로식힌것이라한다 교육기관이 부족되여 취학치못할도 어굴한일이거니와 이왕 배움의 길을밟다가 충도에서 퇴학한다는것은 참으로 딱한노릇이니 죽을힘을 다하여서라도 그러한일이업도록 분투할필요가 잇다고한다 이제퇴학자를 학년별로보면 다음과갓다

	授業料未納人	其他	合計
一年	一三六人	六○六人	七四二人
二年	一二八	四五九	五八七
三年	八七	一九二	二七九
四年	六八	三○五	三七三
五年	七九	二五四	三三三
六年	四九	一五九	二○八
高等	二	二三三	二三五
計	五四九	二二○八	二七五七

架設中의電話線에서 二千"메터"를窃取

犯人兩名은春川署에

【春川】북지사변으로인하야 일반은 상당한 긴장미를 띄이고 잇는이때 동전선(銅電線)을이천『미돌』이상이나 절단하여옴으로 그가격보다 때가때니마치 각게에 적지안은 충동을준 희유의 절도범을 드듸여 춘천서에서검거하엿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본적을린제군기린면서리(麟蹄郡麒麟面西里)에 두고 춘천읍소양통일정목(春川邑昭陽通一丁目)에 거주하는 리현모(李鉉模)(二○)는 이전에 전공(電工)의 부하로잇든관계상 전선(電線)에 대하야 상당한 상식을가지고 잇는데얼마전부터 전선(電線)을 절단하야 팔어 돈을 좀모아볼생각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생각하든중마침 춘천읍약사리(春川邑藥司里)에 거주하는 박만석(朴萬錫)(三五)을꾀여서 그뜻을말하야 가치 일을 꿈이기로 작정하고 지난칠월이십, 이십사 이십륙일동안에 춘천군신남면(春川郡新南面)『무네미고개』에서 경춘철도회사(京春鐵道會社)에서 가설중인 전화선(電話線)을 약이천백『메타』가령끈어 가지고유히경성모고물상에게이백여원을받고팔어먹엇는데이사건이발생하자 춘천경찰서에서는 시국이불안한이때에 더욱이 전화선절단사건이발생하엿슴으로 중대시하고전중사법주임이하 계원이 총출동하야 철야활동의 수색을계속하엿스나 이러타는 단서조차엇지못하고 초초하게 수일을지내엿는데 지난삼십일일밤 두시에확실한단서를 알게되자 때를옴기지안코 형사대는 활동을 개시하야 그날 새벽 여섯시에 김(金)형사가 전기리현모(李鉉模)를 체포하고 이여서화천(華川)에 잠복하여잇는 공범박만석(朴萬錫)도 체포하엿고 그전화선(電話線)매매에 관계한자를 속속검거하야 엄밀한취조를 계속하며 일방으로는 관게자를조사키위하야 ○○방면으로 춘천서원이 출장하야 활동중이라고한다

京南線運轉時間改正

【牙山】경남철도회사(京南鐵道會社)에서도 경부선기차운전시각개정실시에따라 천안과 온양온천간의 경남선열차시운전시간도개정하야 지난사일부터실시하엿는데 그시간표는 다음과갓다

溫陽溫泉發 天安行 午前八時三十七分 午後十二時四○分 同二時二十七分 同四時十三分 同六時 同七時三十六分

溫陽溫泉發 長項行 午前六時五十五分 同十時十四分 午後二時四分 同五時三十六分 廣川行 午後九時十三分

新府域京南에는 飮料水까지不足

經費過大로水道敷設도無望

井水는감을면涸渴、비오면混濁

【京南】물이더욱만히 사용되는 하절을 당하여 수도조차 업는 경성남부지방일대는 지형도놉고 오래동안계속하는 한발로 인하여 음료수는물론이요 허드레물까지업서 그곳주민들의 곤난은 매우 자심하다한다 한강이 갓가운 서빙고정(西氷庫町)이나 보광정(普光町)한남정(漢南町)가튼 곳은 물이흔하리라고도 생각되나 사실에잇서서는 정반대의현상을 이루고잇다 이상세정(町)에서는 리태원정(梨泰院町)과 북부보광정과는달러 허드레물은 겨우어더쓸수잇스나 경기도위생과의 감정으로 음료수에적합한 우물은물과멧군대되지안어 오류백호에공용우물한개라는 기가막히는현상이다 이러한귀중한여할을가지고잇는우물들이 여름철이되면 때때로 오는소낙비로 음료수로쓰지 못하게되니 그 곤난은 여간이 아니라한다 그중에도 더욱 심한곳은 리태원정인대 이곳은 지형조차 놉파서 우물을 수십척식파도 물이 나오지안으며 모도가 이천여호나되는동리에 음료수에 적합한우물이단지 사오개소에 지나지못하며 그것이나마 요사이는 오래동안계속하는 가뭄으로인하여 물이나지안음으로 동리사람들이 밤을새워가며 물을떠도 하로에한동의물을 엇지못하는사람이 잇고 물을 구걸 하여온다 이러한 곤난을 참지못하여 동민들이 연합하여 경성부 당국에 수도시설을 진정하엿스나 비용관게로 드러주지안코 요사이에와서 한동리에 우물두개식을수선하여주엇스나 그것도 물이나지안는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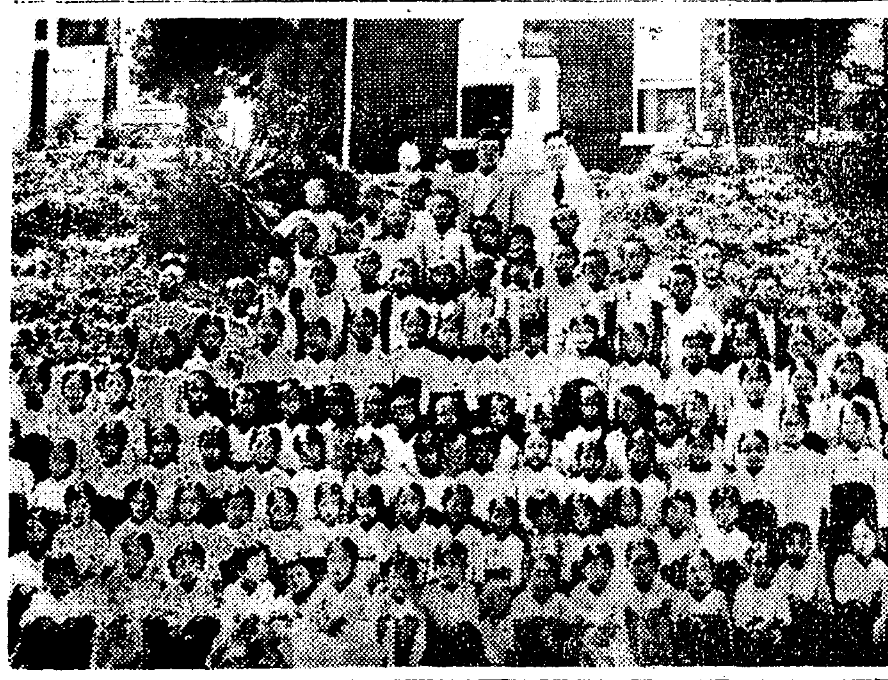
東一銀行幹部等이 永登浦와서懇談

五日、有力者와會見코

【永登浦】신치용이 함흡정비되여 개생의 의기가 창일하고잇는 동일은행에서는 지난 오일동행 서무과장 률원묘삼랑(栗原卯三郞)씨와 동본점지배인 망월명길(望月明吉)씨가 대경성의 공업생산지대로서 중요시되고잇는 영등포에 출장하야 동행영등포출장소주임 리택(李澤)씨로부터 관내상황을 상세히 청취한후 중요관공서 회사등을 방문하야 인사를 맛치고 도회의원 김태집(金泰集)김민식(金敏植)량씨와 삼고경성부영등포출장소장(森高...)중천행일(中川幸一)등 제씨를회견하고 영등포에대한 금융상황과금융기관에대한 희망가타참고자항에대한의견을 교환하엿는데 동행서무과장률원(栗原)씨는 특히 공장지대영등포의 지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최선을다하야 봉공항은물론 각공장의 종래불편을 일소하야 진실노조선인행물대신하는 중책을가지고 안심하고 거래할수잇도록 적극적업무를 운영하겟다고 언명하고간선도로의 확정에따라 은행청사의 신축도 급히서두루며 지점승격등도고려하겟다는 포부를말하엿다고한다

夏期兒童學校

江華合一校에서



【江華】제이회 하기아동학교는 ... 다 [illegible] 생 김용태(金容泰)군과 리화보육에잇는 권정인(權貞仁)양과강화읍에잇는 박의명(朴義明)군등 ...기(趙顯基)외 수씨의 헌신적 로력으로일반아동에게 만흔유익을 주엇는바 지난이일로써 성황리에 마치엿다 (사진은 第二回江華夏期兒童學校紀念撮影)

仁川港貿易激增

北支事變에別無影響

比前年同期四百萬圓增加

【仁川】방금북지사변중에잇는 북지사변은 불제만제하고 인천항의무역액만은 격증하고잇다 이제칠월중의 인천무역액을 보건대 일천구백팔십구만사천오백팔십삼원에달하다는바 이를전년동기일천오백이만오천원에비하면 약사백여만원의 증가를보여주고잇서 그자세한것은 다음과갓다

◇仁川七月中貿易額

輸出 一、三三一、○六○圓 輸入 一、三五九、三三二圓 計 一七、一四九、五二二圓 總計 一九、八九四、五八三圓 前年 七月總計 一五、○二五、八四五圓 移出 四、七九○、一九一圓 移入 四、六八、六三八圓 增加

高燭電燈을켜노코 裸體의麗人橫臥

仁川防護團燈火管制演習中 某工場女工의失態

【仁川】북지사변과 한가지 방금전조선적으로 등화관제실습을 철저히하고잇는이때 인천부방호단가분단도 계속적으로 등화관제실습을하고잇다 지난오일은동분단(東分團)구역의 등화관제실습을하는중 방호단장 영정(永井)부윤과 인천경찰서장이 점구역을 점검하는중 대화정(大和町)『오다후구』공장에 이르렀을때 이상스럽게도 동공장은 백주와가티 고촉의전등을 켜노흔방이잇슴으로 이를수상히 생각하고 넘기여보앗든바 의외에도 순나체의 묘령녀이삼명이 횡와(橫臥)하고잇섯다 더운때이라나 체로잇는것은 별문제라하드라도 비상시연습에 직공천여명을 점유하고잇는 공장의실태이라 용인할수업서 엄중한 주의를하도록 하엿다한다

旅館의主婦가 染病으로死亡

【江華】강화읍관청리(江華邑官廳里)에사는조기순(趙基淳)의 처(妻)김씨(金氏)(三五)는 장질부사로지난이일 강화읍내격리병사에 수용되엿스나 물비한설비와 여러가지관게로 그성적이 조치못하야 지난사일오전에 그만사망하고말엇는바 전기 조기순은 여관업을 하는사람으로 이가튼 병의 형의자가 왕왕잇섯다고하며 여객들은 이시정을 알자 대경실색하야 분산을하는 한편강화경찰에서도 철저한 방역에 주력하고잇다한다

春川防護團結成

五日에盛大한結團式

【春川】북지사변이 점점확대됨을따라 각지에 국방단이 속출하는데 춘천에서도 그간춘천읍방호단(春川邑防護團)결성에 대하야 기초공작을 진행중이엿는데 지난오일아츰 일곱시를기하야 춘천소학교운동장에서 결단식(結團式)을 거행하엿다 김(金)강원도지사를 위시하야 관민 약이천여명이 회합하야 참으로 성대한결단식을거행하엿다

武運長久祈願祭 楊州各寺刹에서

【楊州】양주군내에 산재한사찰(奉先寺)망월사(望月寺)소요산자재암(逍遙山自在庵)회룡사(回龍寺)를위시하야 군내약삼십개소사찰에서 지난일일 새벽다섯시부터 무운장구(武運長久)의기원제를 거행하리라한다

西氷庫町에업동이

【京城】지난사일오후아홉시경부내서빙고정(西氷庫町)백십오번지 권정국(權正國)(三?)씨집 문간에 생후약일개월가량 되여보이는여아(女兒)를갓다 노코 간사람이잇다 이보고를밧고 소관서빙고주재소에서는 그날밤부터 서빙고정일대를중심으로범인을엄탐중인바대개범인은동정에거주하는자로추측하고목하엄중한조사를진행중이다

結論못엇고散會

四時間의長久한協議

仁川運輸業者緊急會에서

【仁川】열차운전단축과 시간제정으로인하야 각종운수업자들은 어에대한대책을 조사연구키 위하야 운수업자들 세관리들합하야 잇섯다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하등의 결의를 보지못하얏스나 방금시행중인 열차시간이 당분간이라면 그리큰영향이업슬뜻하나 만일장구한시일을 요한다면 국부적으로 다시연구할 필요가잇다하야 당면에조사연구는물론 각종재료를 수집키로하얏다

嬰兒壓殺

【金浦】생활곤난으로 영아를압살한 비참한사실이잇다 그주인공은 군내면걸포리(郡內面傑浦里)삼백팔십삼번지 윤도야지(尹道也地)의 내연처최점백(崔点白)(二七)을 수월전부터 전기윤씨와 동거하게되자 그전남편에게서아이를배고왓는것이 지난칠월이십이일에 옥동자를분만하엿스나 생활의곤난과 남편보기에미안하야 그죽석에서 참혹하게도 압살한후 자기전남편에게는 병사한것으로 말하고 공동묘지에 암장한사실이 최근에와서 김포경찰서국지(菊池)형사에게 알린바되여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小井里에서도獻金

【小井里】북지사변이 날로악화함을알게된 소정리우편소장(小井里郵便所長)최우식씨 장남병회(崔宇植氏長男炳會)씨는 수일전 당지경찰서를 방문하고근소하나마 국방비로 헌납하야달라고 현금오십원을 기탁하얏다한다

地方人事

◆金洛斗氏(總督府煙草販賣所員) 咸北吉州煙草販賣所轉勤人事次本報楊州支局來訪

◆野口兼吉氏(楊州警察署長)京城消防署長榮轉人事次同上

◆井上己吉氏(楊州警察署長)新任人事次同上

◆岡田忠雄氏(前仁川署警務主任)鐘路署榮轉人事次本報仁川支局來訪

◆洪秉寔氏(前仁川署衛生主任)漣川署榮轉人事次 同上

◆藤田知己氏(長湖院金融組合理事)轉勤人事次本報長湖院支局來訪

◆鈴鹿藏富氏(長湖院金融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報長湖院支局來訪

◆沖繩隆氏(警部補)廣州署着任人事次本報廣州支局來訪

◆車相悅氏(利川郡庶務係主任)新任人事次本社利川支局來訪

◆井川辰雄氏(京畿道廳屬)利川郡在勤新任人事次本社利川支局來訪

◆吳翊泳氏(牙山郡庶務主任)赴任人事次本報牙山支局來訪

酷暑로赤痢猖獗

仁川府에新患者續出

【仁川】작금비등점(沸騰點)을육박하고잇는더위는 소화철이래의 초기록을 지읫수고잇는만큼 인체(人體)에 파급하는영향이 적지안허 작금인천은 적리병(赤痢病)이 창궐하고잇서 지난사일에만도 송현정(松峴町)삼십일번지 고전쓰루에(藏田ツル)(二八)와 송판정(松坂町)일정목이번지 윤월순(尹月順)(三七)두명의 적리병자를발견하고 방금덕생원(德生院)에서 시료중이라는바 벌서 지난칠월부터의 루계는 삼십사명에달하는형편임으로 인천서위생계에서는 방역에노력중이라한다

德積島에도 赤痢病猖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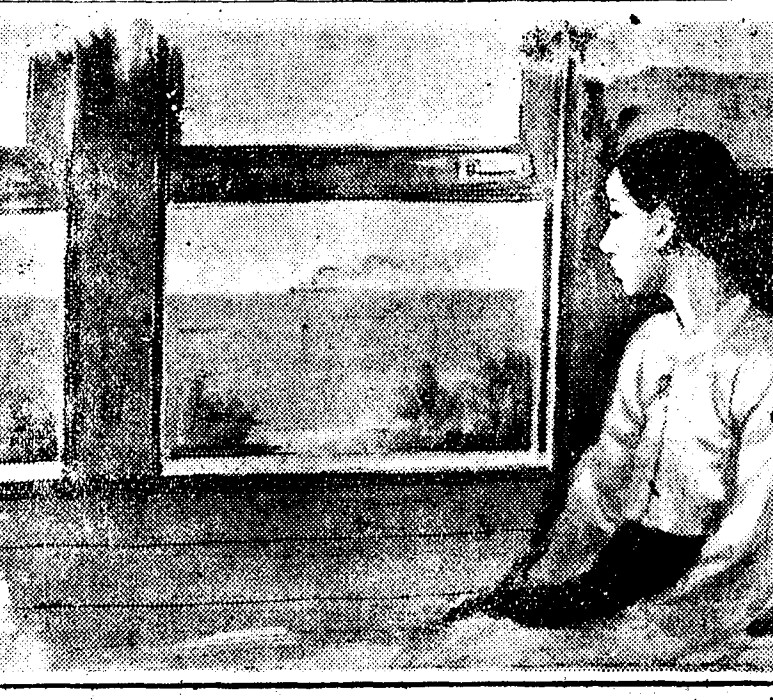
【仁川】인천근해어촌 덕적도(德積島)는방에는 근일적리병(赤痢病)이 창궐하고잇서 현재삼십륙명에달함으로 인천서위생게에서는 아연실색하고 방금엄중경계중이라는대 어느부근해상에서수획된 어획물의관계로 전염된것이나아닌가하고 어획물까지도엄중조사중이라한다

長篇小說 花冠 【九】

李泰俊 作　金奎澤 畵

여름밤의꿈(九)

갑작이 시원한이 물속을 달리는것 가티 기차는 바다를 그렴인듯 머리를 흘려 피하며 변두리로만 달아난다。 산이 오면 굴이 되고 굴을 나서면 다시 바다가 벙글벙글 돌아단인다。 새로 딴 굴내 가튼 싱그러운 조수의향기。 얼른 뛰여나려 맨발로 밟아 보고시픈 오리십리씩의 금모새밧 새파란칠판우에 분필로 그려노흔것가튼갈매기가 그림이 아니라 살아서 훨훨 날러가는 모양 어대로 가는 배일가? 꿈가튼 실연기를 끌고 아득한 수평선 넘어로 사라지는 기선의 모양、 바다의 풍경은 눈과 마음이끗업시 날라갈수 잇는듯이여서 삼방일대(三防一帶)의 산협풍경보다는 훨신 낭만적(浪漫的)이다。



바다바람에 압머리가 올올이 날르는 동옥의 머리 속에는 『끗업시 여행하고십다!』하는 정렬이 지나간다。 일어나 시렁에 얹엇든 가방을 꺼내엿다。 구두끈도 다시 죄여 매엿다。 파라솔도 집어다 무릅우에 노코 『정히가 내가 이차에 오는줄 알기나할가?』 생각해본다。 『어떠케 알어? 찾기나 쉬운 집인지? 약혼햇단 남자는 어떠케 생겻슬까? 별장을 짓는다니까 부자집도련님가 잇겟지……그리구 동경유학생은? 뭐、아주 평판잇는미남? 왓다가 반하지는 말아라? 홍……』 동옥은 정히가 편지에 말한 정현을 생각해본다。 아모리 사교딴스의 교원면허장을 가젓다면 그의 공부라는것은 물론 가지엿것 가텃다。 『참! 우리동석오빠! 아직 안나왓슬가?』 동옥은 동경유학생의 생각을 하다 동석(東錫)의 생각이 낫다 매촌이지 촌수는 아지 못할정도로 먼 오빠인데 동옥으로는 자기 친오빠보다도 존경 하는 남자이다。 그는 생기기부터 좀우락부락하다 하리만치 남성적이요 성미도 괄괄하여 한번도 소리어서 웃는적이 업다。 중학

때부터 사회문제에 예민하여 가끔 동옥에게도 자기 개인일이아닌것에 흥분을 보히군햇다。 『저 오빠는 인제 큰일을 할 헤니 봐……』하는 생각이 언젠지 모르게 벌서 여러해 전부터 동옥의머리에 박혀진 청년이다。 이번방학에도 그냥 나오지 안코 동경서도 더 북쪽에 잇다는 무슨모범농촌을 구경하고 온다고 동옥이가 서울을 떠날때까지 나오지 안햇다。 『딴스에 정통한 남자、농민문제에 정통한 남자、사회는 어느 남자를 더 요구할것인가? 어느 남자를 더 우대할것인가?』 차는、내다보니 다음이 송전(松田)이라 씨여잇는 정거장을 다시 떠난다。 『사회는 물으나마나 다 개인 우린? 더구나 지금 나가튼 처녀는?』 동옥은 혼자 차창을 향해 우섯다。 개인으로、더구나 처녀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람따라다를것이엿다。 동옥은 사교딴스의 교원면허장 아니라 딴스로는 박사라 하더라도 그것에 경의가 표해지지 안는다기보다는 그런 넌센쓰한 모던뽀이에게 『왓다가 반하지는 말아라』한정히의 말에 일종 모욕을 깨닷는것이면 저 할말이엿다。

기적소리가 난다。 생모시 가튼 모새바레 등성 등성 솔포기가 지나간다。 동옥은 파라솔을 들고 가방을 들고 미리자리를 일어섯다。 찻간을 나섯슬 때는 벌서 저만치 풀래트폼이 보힌다。 차를 타려는 사람들열가 패 여러사람이 모힌 속에는 이내 황정히가 나타난다。 『어떠케 알고 나왓슬가?』 동옥은 파라솔 든 손을 들엇다。 정히도 손을 들며 뛰여온다。 정히만이 아니라 그의주위에 섯던 남자들까지 모다정히가 하는대로 하는데는 이상하다。 『웬사람들이?……』 벌서 그들은 눈아페 섯다。 동옥은 가방을 밧는 정히에게 물엇다。 『어떠케 알구 나왓서?』 『우린 어제부터 차마다 나왓다다에 이러케 여럿이……』하고 정히는 자기 뒤에 섯는 남자들을 돌여다 보는것이다。

明日(七日)부터

劇團 青春座 全員總出演

名劇鑑賞의絶好機

林仙圭作

사랑에속고 돈에울고

四幕五場

名優陣(가나다順)

金金鄭鄭李卞卜沈[illegible]韓黃金金金申池池車崔崔黃

東敏 長東基元[illegible]晶一 仙鮮淑銀京美紅(靜美)英銀

圭[illegible]玄安胡鏞圭澤華松澈車英英鳳順鈴女惠善順

感激!感激! 오로지感激의一路를밟아갓업는義憤의눈물을자아내게하는名劇『사랑에속고돈에울고』를보며하염업는눈물에옷소매를적시여서더위에시달니는당신의몸과마음을아울너慰勞하옵소서

001573

東洋劇場 京城竹添町

開演午後 一時三十分 七時三十分

오늘뿐

林仙圭作 三幕六場

愛怨十字路

사랑과원한에十字路에서平生을울고지내는演劇의主人公[illegible]의눈물겨운生涯를조상하는것도오늘(六日)이마즈막입니다單一日뿐인이機會에부듸보아두소서

이상하리만콤感觸이조흔

ランランポマード

란란포마-드

陸軍藥局方收載

ツヨール

쓰요-루

淋病內服新藥

製造元 東京日本橋 ネオ製藥合資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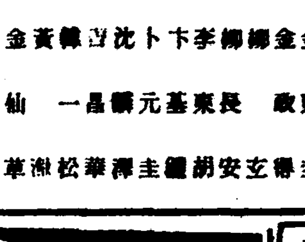
◉무슨종기든지 시초에사용하면 피빨이삭고 몽울이 풀니며 종기가되지안습니다

◉성종된후에사용하면 약지종기며 고름과 근을 곳빠러내여 거악생신이 속히됩니다

藥價 五錢 十錢 廿錢

(全國藥房에서販賣함)

京城府 天一藥房 鐘路町



認可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營業

全鮮唯一認可 (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經濟解說
改正暴利取締令
—그 特質과 缺陷—

本格的으로 戰時氣分에 乘하야 暴利를 目標로한 一部의 生産者、中間商人의 不當한 賣惜、買占이 警戒되는것은 當然한일로 今回 商工、農林兩省이 從來의 農商務省令 暴利取締令을 改正하야 새로이 現在의 物資配給의 實情에 卽한 暴利令을 內、外地를 通하야 一齊히 分布實施키에 至한것은 適當한 處置라 할것이다

暴利取締令이라는것은『暴利를 得할目的으로써 特定한物品을 販賣코저 하는者에게對하야 商工大臣 又는 地方長官이 違反者에게 對하야서相當한 處罰을 行한다』는法律이다。

×

改正取締令의 特色은 ▲第一로 適用品種이二十六品目에 亘한 廣範의것으로 其中繊其他의 金屬、機械、自動車、電線、石油、石炭、棉花、羊毛、工業藥品、肥料、고무等約二十種이 直接 間接軍需關係品으로서 戰爭에 依한 暴利取得에의 影響을 如實히反映코잇다。

▲第二의特色은 米、麥、小麥粉 砂糖、鹽物、被服等食料品、日常生活品이 指定되어잇슴에不拘코 國民生活必需品의 大宗인 米穀이 日本內地서는 除外되것이다 이것은本法의 施行에當하야商工 農林兩當局間에 勢力다툼이 잇섯든結果라고 傳하고 또農林省에서는 米穀에關하야서는 이미暴利取締令이 업서도 充分한市價調節을 行할수잇다는것이나 政府의 米價統制가 直接小賣市價를 調節할수업는것은 事實로서 今後 豫想될 急激한 米價暴騰과 民衆生活의 不安을 생각하면 이點은 큰 缺陷이될 可能性이 대단히만타。

이點에잇서 朝鮮에서는 日本內地의 麥及 小麥粉이라는것을 穀物及 穀粉이라고 廣範圍로한것은 叙上의 缺陷을 미리 업샌것이라고할수잇다。

▲第三에는 本法發動의 基準이 決定되어잇지안흔것이다 商工省에서는 大體 現在小賣市價의 二割以上의 價格으로써 賣買할 時를 暴利라고 認하는 意向이나 이것도 判然한 標準이 아니오 漠然한 社會通念이라는것中에 基準이 曖昧되어잇다。

그리고 本法發動에 際하야運用의 實際에 當하는者는 各地方長官임으로 如斯한 不明確한 基準下에서는 暴利의認定은 恆히 不統一함을 죠치못할것이다。

▲第四로 違反者에게 對한 罰則이 대단히輕微한것이니三個月以內의 懲役又는 百圓以下의 罰金으로되어잇는데 此等의 暴利取得을 目的으로하는 不良商行爲는 恆常一擧巨萬을 得코저하는者로서의制裁로서는 過히 輕하다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

今回의 暴利取締令改正의特色은 大體右와가튼데 如斯한 法律은 現在의 事態에 如何한 效果를 擧할수잇슬가?

暴利取締令發動에는 二個의先例가잇스니 그一은 大正十二年山本內閣時、關東大震災直後의緊急措置의 一로써緊急勅令에依하야 施行된것으로이것은 食料品、燃料、運用具、建築材料、藥品、雨具等、罹災民의日常生活에取하야 不可缺한商品에關하야 適用되고 暴利認定의基準은震災前三年乃至五年間平均의 三割以上이라고 罰則은 三年以下의 懲役又는三千圓以下의 罰金이라는相當한 效果가잇섯는데 그러나 이것은 單純히偶然의 災害對策으로서 災害地帶에 限하고 施行期間도 一時的으로大正十五年三月에 廢止되엇다。

또하나는 이보다압서 大正六年寺內內閣이 世界大戰에依한 物價暴騰에備하야 農商務省令에依하야 發動한것으로今回改正이되는取締令이實行된것이다。

이取締令에는 米穀類를 비롯하야 鐵 石炭 綿絲布 肥料 紙 藥品等重要商品 生活必需品의 大部分을 指定하얏슴에不拘코 罰則規定도 今回와同치안코 暴利基準이 判然치 못하야 物價抑制의 效果가 업시 同法의 發動自體가 投機買占을 [illegible] 結果로되어 完全히 失敗의立法으로써 끗낫다。

第七年의 米價暴騰에 依한 米騷動의 勃發을 어[illegible] 原因에 依한 [illegible]

高利貸金業橫行
金融界變態相
一流商工業者까지高利貸利用
日步二〇—二五錢

金融硬化에依한 銀行의 貸出引締方針은 取引者에게 相當히 深刻한 影響을與하고잇는 모양인데 最近特히 顯著한 傾向으로서는 一流商工業者까지가 高利貸를 利用하고잇는 傾向이라한다 日步二十錢乃至二十五錢程度의高利도 盛히利用하는 者가 만아高利貸의 橫行이顯著하다한다如斯한傾向이 今後도繼續되면 金融界로서도 一大問題化할 可能性이잇다하야 注目中이라한다

一時的現象
—過渡期試鍊時代—
◇……銀行方面의觀測

生産力擴充이 盛行함에反하야 銀行이 時節關係로 貸出을 躊躇하고잇슴으로 이런結果가 생긴것이다 그러나 이現象은 勿論一時的의것으로 生産力擴充이 完成되어 生産品이 생기면 資金은 還元될것으로 一種過渡期試鍊時代라 할것이다

江界水力許可
二十萬키로왓트發電
十六年末까지完成

江界水力은 第一期統制計畫에 잇서 開發豫定이던 發電水力인데 東拓을主體로한 江界水力電氣會社發起人으로부터 該水力開發의許可를 申請中이든바 七月三十日附로 許可되엇다

江界水力株式會社의計畫은 第一乃至第三의發電所로 合計最大二十萬『키로왓트』를 發電하고 其中十五萬『키로왓트』는 東拓과 日本電工의 共同出資로 되는朝鮮化學工業株式會社의『알미늄』及銑鐵工場에供給하고 남어지五萬『키로왓트』를 電氣事業者에게 卸賣할計畫이다 工事는 大體昭和十六年末에 完成할豫定이라한다

咸南道에서指令

東拓과 森콘체룬의 共同出資에依한 江界水力電氣申請은 關係當局의 審議를 終하야總督의 決裁를 得하얏슴으로 認可書類는 關係道인 咸南道에 通附되고 東拓在方理事는 五日京城發 六日咸南道廳에 出頭하야 許可指令을 接受하얏다

朝鮮化學工業
資本五百萬圓

日本化學工業의 日鐵과提携하야 鎭南浦에생길化學工業計畫은 其後本社에서準備進行中인데 朝鮮에 別個會社를新設하고 如左히 具體化하게되엇다

一、資本金五百萬圓으로써 朝鮮化學工業株式會社를 八月下旬乃至九月初에 新設하고 本社를 鎭南浦에置함

一、右新會社의資本은 日產系及日本化學에서 出資하고 發起人은 [illegible] 實豫定

一、此等工場은 明年八月完成을 目標로急速히 工事를進行할設立

一、工場은 硫酸製造及 過燐酸製造인데 第一期는 硫酸十二萬噸 過燐酸八萬噸

一、過燐酸의 販賣는 朝鮮農會와 緊密한 連絡下에 特約販[illegible]

北支의中央銀行
鮮銀이될모양

北支의治安維持、經濟秩序의回復에伴하야 金融機關의問題는重大性을帶하얏는데 現有勢力이基礎가되어 朝鮮銀行의 地盤과信用이 一〇〇%로 活用될것이豫想된다 이미鮮銀券은 北支에서 가장安定性잇는 通貨로서 市場通貨의機能을發揮하고 其流通額과如何할도 正確한 數量의算定은 困難하나 槪算約一千萬圓에達할것으로推定되며 河北省銀과中央의紙幣 信用失墜에伴하야 이것이모다 鮮銀券에代位되면 平津間만으로도 三千萬圓突破가 豫想되는 狀況이다 그러나 鮮銀은 結局同地에서는 中央銀行的의 發券機能을 業務의 中樞로할것이오 營銀行務其他는 新設關의 創設乃至現有東銀行 濟南銀行等의 改組 擴充을 必至로하리라한다

慶南道에서 產米改善

慶南道에서는 來十日道廳會議室에서 產米改良懇談會를 開催할터인데 總督府에서 伊東米穀課技師가 出席할터이며 同會議의 中心議題는如左하다

▲特殊法權省에依한稗子更新에關한事項

事變應召者의 定期預金拂出
京城서도實施

東京 大阪兩組合銀行에서는今次事變에 伴한應召者에게는 그家族의 銀行定期預金의 期限前拂出을一千圓以內에 限하야 特히 認하고 實施中인데 京城組合銀行에서도 事變의性質上 不得已하다하야 當然이에 追隨할必要가잇슴으로 來週木曜日(八月十二日)에 態度를 協議키로되엇다 鮮銀等에는 陸軍關係의 預金拂出要求가잇고 이에對하야서는이미 無條件으로 拂出하고잇는터이다 그러나 全體로서 如斯한 拂出要求는 僅少함으로 이에依하야 생기는影響은 極少하리라한다

黃海道의水害

過般의水害에依한 黃海道의被害는長淵郡一圓으로如左하다

水稻	三九町一	一六、二〇〇圓
陸稻	三、三	四八〇
粟	九、四	一、一三〇
豆類	八、七	一、四二〇
雜穀	六、八	五四四

西鮮中央鐵道
朝鮮無煙서設立

朝鮮無煙炭에서는 去三日의重役會에서 懸案中인 勝湖里로부터 新成川을 經하야 德川에至하는 百三十키로의 運炭 鐵道(廣軌)의 敷設을 決定한모양인데 [illegible]

緩和陳情
工場建築令

朝鮮工業協會에서는 過般의理事會決議에基하야 京城의都市計畫實施에伴한 工場建築令의 取締緩和에對하야 六日午前田川副會長 澁谷常務理事가 總督府其他關係當局을 訪問하고 陳情하얏다

無水酒精試造
昭和酒造(馬山)에서

馬山昭和酒造會社의 無水酒精製造試驗을 觀察키爲하야 出張中이든 淸水總督府財務局技師는 四日歸任하야 如左히말하얏다

이번은 機械裝置와 見本的으로 조금만들엇는데 試驗이比較的으로 順調로進하야 五十石의 無水酒精이 五日부터된다 이酒精은 九十九、八으로 今後必要에 應하야 年產六千二三百石의 無水酒精이 生產될設備로되어잇다 從來의 例로보면 一까론九十錢乃至 九十五錢程度인데 要는原料如何에잇고 原料如何로 價格이 決定될것이다 日本內地에서도 九月에는 政府工場이될터인데 그實績을보고 朝鮮으로서도 補償金等을 決定하게될것이다 朝鮮酒造나 其他工場이 지금곳 設備할與否는 아직決定되어잇지안타

濟州島開發
먼저用水調查

濟州島의 開發은 十三年度부터 十個年計畫으로 產業全面的으로 實施하기로되엇는데 右計畫遂行에當하야 問題되는것은用水를 如何히할가함에 잇서 調查主體가되는 道當局도 目下로서는 豫測할수업서 愼重히 그對策을 考究中인데 同島開發의 實現化를 促進하기爲하야 計畫中의 特殊會社인 濟州島開發會社의創立運動도 一時停頓狀態로되어잇는바 國策的見地로볼지라도 同島開發은 早急實現을 期할것이라는 見地에서 道에서는 近近 보ー링그에依하야 濟州島一帶의 用水試驗을 行하기로되어잇는데 右試驗結果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고잇다

七月中郵貯

京城府金管理所에서取扱한 七月中의 郵便貯金의新規預入額은 三萬二千九百四人으로 [illegible] 月中의 預入總金額은 [illegible]三萬八千九百十六圓 拂戾總金額九百十四萬一千九圓 七月末現在預金者總數는 三百十五萬九千八百九十一人 預金總額四千五百三十四萬一千三百六十二圓이라한다

經濟界消息

○林業開發本社를 東拓內에 近間創立될 朝鮮林業開發會社는 黃金町東拓支社內에 本社를設置키로 決定創立事務도 同所에서 執務하리라고

○新興無煙鐵=新興無煙에서는 三日決算 重役會를開催하고 上期決算案을附議 九分配据置內定 株主總會는 今月末京城本社에서 開催豫定

○滿洲興銀五分配=滿洲興業銀行에서는 八月十日定時總會를開할터인데 配當은 年五分据置로內定하얏다 大株主인 鮮銀에서는 大塚理事가 七日午後一時四十五分發十六日午後二時三十一分京城着歸任豫定이라한다

寸鐵

○ 貨物受託制限으로 商界는開店休業

○ 때는 正히 非常時局을 認識할때

○ 가득이나 金融梗塞인때 金融은 一層逼迫할모양

○ 이런때를 乘機하야 高利貸金業者跋扈 勿驚日步二十五錢이라고

○ 暴利取締令도 必要하지만 高利貸金業者에게 鐵槌를내리라

取引停止

(八月三日) ▲製藥商 京城府元町二丁目二三 谷野末松 ▲酒造業 京城府樂園町二二七 安龍植 ▲ 京城府都染町五〇 許鑿鉉

今日의市勢(六日)

株式
先低後高 鍛鍊

前場續落 昨日 日產의減配說에 依한 奔落으로 諸株가 反落하엿스나 後場止는 比較的 底堅하엿는데 今朝에 다시 鐘株는 軟弱하엿스므로 主力株도 다시 續落步調로 東新은 再次 百三十八圓臺로 賣叩되고 鐘新은二百五十二圓臺로 反落하엿스며 日產七十一圓丁 大新七十七圓丁으로 不勢이엇스나 이以上의 追擊도 警戒되는 모양으로 觀望裡에 前場을 마치엇다

後場底堅 後場은 東新九高、鐘新一圓四高로反堅調에 始終한後 利喰과價位買物로 下澁裡에 底堅步調이엇다

戾賣人氣旺盛 增稅로因하야 日產의 減配不免일것이라는說이 一部에도라 昨日 日產은 見落的瓦落을 告하엿고 이것을機로 諸株一齊賣物에 壓倒되어 今朝에는 鐘新二百五十一圓案(東京) 東新百三十八圓案(東京)를 示現하기에 [illegible]

雜株低迷狀態=增稅로因 [illegible]해減配할會社도 적지안흘것이라고하야 買方도 積極態度를取하지안키때문에 雜株는아직低迷狀을 未脫하고 賣買도 極히閑散하다 그러나 優良株는 지금부터 買進할 順序가아닌가 하는說이 有力하다 今朝에는 電工新이三六、〇으로 一圓低이나 北樺鐵은 再昨二十圓丁에賣叩되엇다가 二十四圓丁으로 反撥하엿고 日立新은 四九、八로五低、日曹鐵도 五低로 二三、三이며 日曹[illegible]은 八低로 一九、〇이엇고 日曹鐵은 三低인三十圓丁唱이오 日產新은 五六五로 不勢이엇다

國債
金融念慮 買氣薄

【東京電話同盟】新甫發會의 市場은 前途增稅念慮와 北支情勢透視難에 伴하는 金融情勢推移念慮로 買氣가적어 處分賣物이 續出하야 內地債는 大槪五錢乃至十錢低落하고 米貨債도 依然賣買가업고 佛貨債도 二十錢低落하엿다 ▲佛貨 一九五二〇

期米
少堅裡에 頭重

前場反强 今朝는 晴天으로 阪地初三十一圓八十六錢인 三丁反落을 擧하고 當은 二圓四十九錢인 六丁低、中은 一圓八十五錢인 三丁低로 先限은 二十九圓五十八錢인 二丁低로 寄付한後 阪地二節亦八十六錢을 始한後 報發入하야 五十五錢까지 續落하더니 阪地稍漸反高로 七節九十六錢의 高報를 接하고 七節六十七錢으로 結局 阪止九十七錢을보고 六十八錢에 止擧하다

後場保勢 後場은 二十九圓六十八錢인 前止同價로 始擧한後 二節六十五錢으로 三節六十八錢、四節六十七錢의 細刻으로 商畫保合이엇다

市場六感

株……昨日來의 反落으로戾賣人氣가 如何히 强한가를可知나▲急反後의 急崩落으로보아 仕手의 策動이 잇는지도 亦未知 ▲賣하고 너무도 安心할수 잇는時代는 도로혀警戒時期! ▲主力株보담은 雜株의 動搖가 甚하야 雜株低에 牽制되어 主力도 無氣力한狀態 ▲雜株動搖는 減配等이 續出할가 憂慮하는모양이나 產業界가 그만한 增稅로 挫折될까닭도업스니 그도亦是 人氣作用 ▲低落市勢의 末期에賣人氣가强하거든底入前提로 보라는것이 市勢의奧義(金剛城)

米……二百丁內外로縮少하엿든 阪仁의綱는反히二百三十丁程度의擴縮을示한다 이로부터 다시縮締할大例?▲頭上天候가 樂觀아닌바는아니지마는 漠然樂觀하지는못할時期▲虎君이란 剛名을表는颱風은 이로부터가 그威力을發揮할모양이니 아무리乘勝長驅의氣勢를올리는軟軍으로도 虎君아페는견데못하겟다▲果然아프로六七次나냥은颱風이 밝엇이南支那海로 달아나거나 太平洋으로떠저나간다고는斷키難할일이엇다(釜山)

順氣賣物續出

十用前後의 天候는 何等의支障이업시 順調經過이엇고 第二次로 發生한 颱風의 若干被害가 九州一部에 잇섯슬뿐으로第三次颱風은 何時의 餘路이엇시 東支那海에서 上陸하고말엇다이와가티 日本內地及 朝鮮의天候가 良好하야 目前의 現狀으로는 豐作을 모히 可期할수잇음으로써 萬人이면 萬人이거의軟弱化하야 잘아리『모도리』엇의 方針을取할지언정 高價買는警戒하는모양으로 踏境界의 實米事情이 如何히 緩變할것을 不拘하고 實氣에過醉되는 光景이다 果然 今後의 天候가 過去와如히 順氣를繼續할것인가 이如何로써 大勢를 左右할모양인데 新甫十限이 大下轉로 發會한後 阪仁共히 七十丁內外의 繼寫을 告하엿다 그러나市勢란 陰陽生의 原理가 업지아니하고又는 阪地先限三十一圓八十錢臺當地二十九圓五、六十錢의 反落은旣히 順氣의行動을 一巡하엿다고도 할수잇스므로 株守的實方針을 樹하고잇는것이아닌가 생각된다

深入落은難期

日本內地及 朝鮮을不問하고繼上天候는 例年에보지못하는 無類의 好順을呈하야 昨年凶作의 餘波가 正米의 實勢에如實히미쳣에도 不拘하고 豐作豫想의實物이 出現하야 阪地는三十一圓八十錢臺 當地는 二十九圓五十錢臺의 低落을 示하엿다 勿論今後의大勢가 全혀 天氣의 良否로서 決定될것은 更言을要치안흐나 그러나 順氣賣에 買向한다는格言이 잇는만치 萬人이모다 熱狂的으로 賣叩하는此際에 찰아리 買妙味가 잇지안흘가한다 實로 植付期로부터 제入期에至하기까지 天候가繼續的으로 良好한일은 前例에도 업는[illegible]로 開花又는 黃熟期의 天候가 依然良好하리라고 漠然한 樂觀할수업다 그뿐만 아니라 乾燥한朝鮮의一部와 全南部에는 旱魃가擴[illegible] 慶南北[illegible]하야今까지未植의곳이잇스니 제入을마치기까지故心할수업슬것이며 딸아서深入落은期待키難할것갓다

正米
實需不振 閑散

京城不變 定期少堅이나數行不振으로 不變唱이며 依然取引皆無의現狀이다 ㊀三等三二、五〇 四等三二、二〇 一等白米[illegible] 情이다 ㊀銀坊主 三三、〇〇 一等白米 一四、一〇

仁川保合 依然産地賣物稀薄狀態로 少强步調이나 今朝定期伸惱와 日本內地不買로 買盤이엄고 市場은閑散하다 ㊀ 穀良三等三二、五〇 四等三二、二〇 銀坊主三等三二、七〇 四等三二、四〇 多賀三等三二、一〇 四二四、五〇

釜山保合 奧地에서 整理的賣物이多少나오나 品薄인때라 低價에는 實惜買繼續하고잇다 그러나定期小浮動으로 精米側이 必需에 切迫되어 買付를 行할뿐이오 一般의 消極態度로 市價不變唱이다 ㊀穀良三等三一、八〇、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一三、八五

大邱不變 晴天繼續으로多少樣氣的이라고생각되는 賣物이 散見되엇스나 實需不振으로 買氣는업고 繼續閑散狀態이엇다 ㊂ 穀良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一三、六〇

群山落調 大農側은 價位關係로 賣惜하고잇스나 依然日本內地商의 買氣는 皆無이오 今朝定期의 鈍重으로 人氣는 沈滯不振하야 氣配二十錢低이엇다 ㊂ 銀坊主 三等三一、九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四、一〇

木浦不動 依然現品薄의市場이나 依然人氣絶狀態로 地場의買氣가업서 [illegible]方新材待의風

今日財界大日

◆米 (單位十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㊂三等米一石 [illegible] 京城一等白米一百키로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고무神戶現 [illegible]

◆株 (單位十錢)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新 [illegible] 綿花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八、八〇〇 累計 六〇、三〇〇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六日)

▲白米(斤、單位錢) 一、三七

▲麥粉(二二斤、單位錢) 多賀綿特二、七〇 一等二、六〇

▲肥料(一〇貫、單位錢) 二眞四、八〇 카메리야七、八〇 硫安(各驛渡) 三、七〇 過燐酸石灰 仁川沖 二、〇五 豆粕(安東驛) 二、五〇

▲紙物(單位匣) A模造紙(斤) 一、三七 中質印刷紙(同) 一、二七 半紙綿因州手內質四〇 二、〇〇 朝鮮映寫紙一塊 一三〇、〇〇 溫突紙(全州一枚) 、四五〇

▲燃料(噸、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煉炭二六 二一、九〇 京畿檢查木炭一等(二〇貫) 一、四五

▲洋灰(五〇瓩袋、單位錢) 小野田一、〇八 淺野一、〇八

▲砂糖(百斤、單位錢) 白 二三、八〇 黑 一四、五〇 分蜜 一九、二〇

▲釘物(單位錢) 亞鉛引平板赤四(枚) 一、二二 丸釘一吋(樽) 一七、六〇 鐵線六番(一〇貫) 九、七〇 丸鐵二分(同) 九、八〇

▲海産物(單位錢) 乾明太(駄) 五〇、〇〇 乾大口魚(斤) 、二四

▲乾料(斤、單位錢) 암치(手) 一、〇〇—五、〇〇 곽지미역(手) 、五〇 [illegible]

▲漆料(單位錢) 白메인드鷄卵A(一二瓩半) 八、九〇

▲木材(才、單位錢) 에나멜赤松色(立) 一、三〇 [illegible]

▲毛絲(封度、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百斤、單位錢) [illegible]

海外經濟(五日)

[illegible]

銀行券(五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鍋油粕·麥粉

◆阪神鍋粕◆ [illegible] ◆阪神鍋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 益康 仁川 金益證券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一九 五一一 三九六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代金引換販賣酬應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